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6호 HYUNBULNEWS.COM 2026년 7월 15일(음력 6월 2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유네스코 개최 부산 '불교문화'로 물든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기간인 오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사찰음식 만찬, 선명상 등 운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문화 홍보부스부터 사찰음식 만찬까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불도(佛都)' 부산이 회의 기간 동안 다양한 불교문화 행사로 채워진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회의 기간인 7월 19~29일 '한국불교 문화유산, 세계와 通하다'를 주제로 한국불교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불교 문화유산 홍보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여하는 협약 당사국과 위원국을 비롯해 전문가 그룹 및 시민 단체 등 전 세계 방문단에게 한국 불교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정신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 등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이뤄진 것으로, 민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민간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사례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계종은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 내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에서 유무형의 다양한 한국불교 문화유산을 주제로 전시 및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통도사와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 한국의 산지승원 사찰들을 비롯해 우리나라 국가무형유산인 국행수륙재 등에 대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7일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주재로 세계유산위원회 주요국가 대표단 초청 '사찰음식 만찬' 행사를 부산 범어사 선문화체험관에서 진행한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지난 2025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음식'은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들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수행정신이 담겼다"면서 "이번 만찬 행사는 전 세계인에게 한국 사찰음식이 담고 있는 이와 같은 정신을 소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7월 26일에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장 내에서 회의 참가자 대상으로 사찰음식 다과와 핑거푸드를 구성해 선보이는 'K-Dessert Day(한국의 사찰음식 맛보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같은 날 세계유산위원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는 K-선명상의 위상과 가치를 전세계의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국가무형유산인 진관사 국행수륙재 시연도 이뤄진다. 또한 사전접수를 통해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범어사 등 세계유산 사찰 및 부산의 전통사찰에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중심으로 사찰 데이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계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한국불교 문화유산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리 불교가 간직하고 있는 가치와 고유한 전통이 세계인들과 더욱 깊은 인연을 맺기를 바란다"면서 "나아가 한국불교가 보존·전승해 온 유무형 문화유산이 인류 공동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출가자로서 7일, 천년의 보배 같다"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는 7월 5일 '바라밀 출가학교 제1기 회향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운문사가 주관한 이번 출가학교에는 13명이 참가해 6월 29일부터 6박 7일간의 교육과정을 전원 수료했다. 수료생 13명 가운데 3명이 출가를, 1명이 은퇴출가를 발

박지운 기자 · 사진 제공=조계종 포교부

조계종 가사 제작 전통, 지식재산 보호

'가사 매듭 흐름' 저작권 등록
전통 불교문화 유산 전승 결실
2026년 4월부터 70년간 보호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 사상 처음으로 전통 불교문화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며 문화유산의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 불교문화와 의식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가사의 매듭과 흐름에 관한 의식적 제작 기록'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구전과 도제식으로 전승돼 온 무형의 불교문화 자산을 현대적 지식재산권 제도 안에서 공식적으로 보호하게 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저작권 등록은 종단이 기존에 보유한 가사 관련 특허권에 더해 가사의 조형적 표현과 의식적 전통을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특허권이 제작 방법과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라면 저작권은 가사의 매듭 구조와 흐름 등 예술적 표현 형식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특허권과 저작권을 병행하는 이중 보호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종단은 이를 통해 가사의 무단 도용과 모방을 예방하고, 전통 불교문화의 원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존·전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정식 등록된 저작물은 불교 복식의 핵심인 가사의 고유한 제작 공정과 매듭법, 그리고 제작 과정에 담긴 의식적·전통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저작권자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2026년 4월 16일 등록을 마쳤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70년간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번 등록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전통 불교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 아래 총무원 교육부와 가사원, 공인변리사가 협력해 추진됐다. 종단은 이번 성과를 제37대 집행부가 추진해 온 '전통 문화유산 가치 제고' 정책의 실질적인 결실로 평가하고 있다.

소관부서인 총무원 교육부는 그동안 종단 통일 의제의 보급과 전승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저작권 등록을 계기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가사 제작 전통을 종단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등록은 전통 불교문화의 가치를 현대적 제도 안에서 보존하고 상업적 도용과 전통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 부서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전통문화 권리 보호와 디지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한국불교의 전통을 온전히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임시회 7월 21일 개원

7월 9일, 간담회서 일정 합의
27명 소집 요구…개회 불투명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7월 21일부터 5일간 제239회 임시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대 종책모임 불교광장 회장단이 임시회 불참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개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앙종회는 7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임시회 개원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선우회장 보인 스님, 정법회장 탄원 스님,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보화 스님 4명만 참석해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는 탄원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27명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것이다. 중앙종회 개원 정족수는 재적의원 81명의 과반인 41명이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① 총무원장 역할과 선출 방법 5면
관심이 신행으로 – ④ 불교 소모임이 뜬다 13면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본사 주지 모임 '공감과 미래' 출범

한국불교 발전 · 종책 논의 예정
회장에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특정 후보 지지 아닌 종책 제안"
일부 교구, '모임 성격'에 이견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한국불교 발전과 종책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공감과 미래'를 발족했다. 모임은 차기 총무원장 후보들과 종단 현안을 공유하고 종책을 제안하는 소통 창구를 지향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7월 6일 대전에서 모임을 열고 '공감과 미래'를 공식 출범했다. 회장에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이 선임됐으며 간사는 은해사 주지 성로 스님,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이 맡았다. 이날 모임에는 지난 7월 2일 공동성명에 참여한 14개 교구본사 가운데 10개 본사 주지 스님이 참석했고, 3개 본사는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임은 7월 2일 발표된 14개 교구본사 주지 공동성명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당시 주지 스님들은 입장문을 통해 "6월 11일 열린 교구본사 주지 간담회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종헌·종법에 따라 공정하고 여법하게 치러지고 종단의 화합과 안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의 취지와 참석자들의 의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집단적 지지로 비칠 수 있도록 전달된 것은 본래의 취지와 참석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회장으로 선임된 호산 스님은 "'공감과 미래'는 특정 기관에 소속된 조직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미래와 종단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임의 모임"이라며 "교구본사 주지들이 교구를 운영하며 느낀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모아 차기 총무원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후보들의 종책 구상을 듣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불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러한 흐름을 종단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총무원과 교구본사의 역할을 보다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교구의 의견이 종단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이라는 해석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호산 스님은 "공정선거를 이야기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스스로 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후보가 확정되면 모임에서 논의된 종책과 제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소통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구본사 스님들도 언제든지 참여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과 미래'는 7월 16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식과 논의 주제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교구에서는 모임의 성격을 두고 신중한 입장도 보였다. 이날 참석하지 않은 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은 "14개 본사 성명에는 참여했지만 이번 모임은 '공정선거를 위한 교구장 간담회'라고 설명을 들었다"며 "그 부분에는 별도로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임장을 제출한 또 다른 교구본사 주지 스님도 "향후 운영 방향을 지켜본 뒤 참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공감과 미래'가 앞으로 교구본사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7월 4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훈련병에게 단주를 전달하고 있다.

상진 스님, 훈련병 3000명에 수계

7월 4일 호국연무사서
군 포교 후원금 전달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장병 3000명에게 수계하며 군 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상진 스님은 7월 4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혜총 스님)에서 열린 수계대법회에서 훈련병 3000명에게 오계를 수여하고, 군 포교 활성화와 신행활동 지원을 위해 호국연무사에 후원금도 전달했다.

계사로 나선 상진 스님은 법문에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의 출발"이라며 "오늘 받은 오계를 지키는 삶이 자신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사회를 이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악업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인 탐진치 삼독심에서 비롯되는 만큼 늘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며 "오늘 수계한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훈련병들은 오계를 수지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힘차게 서원하며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법회에 이어 상진 스님은 군 포교 후원금 2000만원을 호국연무사 주지 혜총 스님에게 전달했다. 후원금은 장병 법회와 신행 프로그램 운영 등 군 포교 활성화에 사용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한국사회 마음건강 증진 방안을 논하다

조계종, 선명상국제컨퍼런스
7월 9일 총무원 지하공연장
진우 스님 "함께 사는 지혜를"



조계종과 김준혁 국회의원, 씨러닝 코리아가 공동 주최한 '2026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가 7월 9일 열렸다. 사진은 개회식 후 진행된 기념촬영.

한국사회 마음건강 증진 방안을 다양한 명상 수행법과 뇌과학, 교육 등에서 찾아보는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준혁 국회의원, SEE Learning Korea(씨러닝 코리아)가 공동 주최한 '2026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가 7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대독한 대회사를 통해 현대사회가 마음의 위기 속에 있고,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함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는 서로를 이겨야 하는 경쟁의 시대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회복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조계종은 오랜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살리고자 선명상을 널리 펼쳐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건강은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며 "이번 국제컨퍼런스가 학문과 수행, 교육과 정책, 시민사회와 공동체를 잇는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되어, 한국사회가 보다 따뜻한 연결과 돌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컨퍼런스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 '자비의 과학과 한국 사회의 마음건강'에서는 롭상 텐진 네기(Lobsang Tenzin Negi) 에모리대학 명상 과학 및 자비 기반 윤리 센터장이 '자비의 과학과 마음건강'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티모시 해리슨(Timothy Harrison) CBCT 디렉터가 '사회에서의 자비의 실제와 효과'를 통해 자비 실천이 스트레스와 자기비난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2부 '감정, 발달, 교육으로 확장되는 자비'에서는 로빈 누스룩(Robin Nusslock) 노스웨스턴대 심리학과 교수가 '감정의 뇌: 건강과 자비로 가는 길'을 주제로 명상이 감정 조절과 자기인식에 미치는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또 로버트 W. 로저(Robert W. Roeser) 에모리대 명상 과학 및 자비 기반 윤리 센터 연구소장이 '자비의 발달: 연구 결과와 미래 방향'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사회정서역량 발달 가능성을 제시했다. 손두샘펠(Tsondue Samphel) 씨러닝 공동 디렉터는 '마음건강 교육과 사회정서 학습의 실제: SEE Learning의 사례'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SEE Learning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아동청소년교육학과 교수 혜주 스님이 좌장을 맡아 '한국 사회의 마음건강,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신중일 기자

진우 스님 "마음 평안 정책 추진을"

7월 8일, 한성숙 총리 예방서
한 총리 "국민 위안 정책 필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를 만나 국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마음 평안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7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한 총리의 예방을 받고 국민 마음평안 정책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진우 스님은 경제성장과 균형발전 못지않게 국민 마음 평안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해결책임을 역설했다. 스님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과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스트레스는 높고 행복지수는 낮다"며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짚으며 "선명상 프로그램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고독사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이런 사회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백제 풍탁(특대)
백제 미륵사지 풍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소리가 좋다! 아름답다! 튼튼하다!



성종사에서 제작하여, 소리가 좋은 것은 기본이며, 아름답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미륵사지 풍탁으로 검색)

1. 튼튼한 스텐레스 소재의 링과 굵고 튼튼한 황동 체인, 황동판으로 제작되어 강한 바람에도 쉽게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2. 풍경의 소음 때문에 풍경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따라 요청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3. 바람판(물고기판)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연꽃, 구름, 종기 등 다양한 형태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4. 표면의 종기 부분을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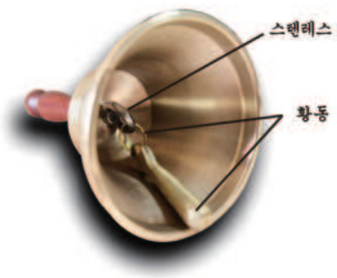
규격
- 종 : 19×14×31cm
- 바람판 : 30×13cm
- 가격: 120만원(개금 150만원)

조계종 화엄사, 광제사, 직지사, 석굴암, 천태종 구인사, 월명사 설치

성종사, 소리 좋고 튼튼한 명품 요령 출시!
사부대중의 요청에 따라 성종사에서 범종용 합금으로 소리 좋고 튼튼한 요령을 출시하였습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소리 좋은 요령으로 검색)



규격 小 : 74×74×180mm / 198,000원
大 : 88×88×200mm / 242,000원



오래 사용하여도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된 추와 링


선물용으로 적합한 최고급 포장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만당 스님 1주기…"포교 원력 굳건히 잇겠다"

7월 4일 영광 불갑사서 다례재
진우 스님 등 1000여 명 동참
"행동하는 행선 수행자" 회고
"전법의 씨앗 거대한 숲 될 것"

영광 불갑사=김내영 기자



취암당 만당 종사 원적 1주기를 맞아 스님의 추모다례재가 7월 4일 영광 불갑사에서 거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포교 원력을 중단 없이 이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취암당 만당 종사의 원적 1주기를 맞아 추모다례재가 7월 4일 영광 불갑사에서 거행됐다.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다례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만당 스님을 "이 시대에 보기 드문 행동하는 행선 수행자이자 공심을 위해 단 1분 1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던 지독한 정진력의 소유자"라고 회고했다.

진우 스님은 "스님께서는 후학 승가에게 이 시대 수행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삶 자체로 보여주신 위대한 귀감이었고, 사부대중에게는 자상하고 지혜로운 포교의 스승이었다"며 "스님이 불갑사와 종단에 심어 놓은 전법의 씨앗은 거대한 숲이 돼 푸르게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부대중은 스님이 남기신 거룩한 불사와 포교의 원력을 중단 없이 이어 나갈 것을 이 영단 앞에서 굳게 다짐한다"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여전히 크지만, 스님과 맺은 법연과 깊은 원력을 믿기에 슬픔을 거두고 스님의 다음 걸음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애도했다.

스님들과 지역사회 인사들도 추모사를 통해 만당 스님의 수행정신과 포교 원력을 기렸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만당 스님은 종무행정을 맡았던 사판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 정통하고 하화중생의 보살행을 몸소 실천한 수행자"라며 "참된 수행자는 떠난 뒤 향기가 더욱 깊어지는데, 모든 이들의 지극한 정성에 스님의 원력이 더해져 종단이 올바로 서고, 모든 중생이 평화 속에 살아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슬픔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라며 "만당 스님께서 전해주신 마음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훗날 다시 만나 함께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한국불교 발전과 문화 전승을 위해 헌신한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그 발자취를 따라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상좌대표인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과 정길수 불갑사 신도회장은 만당 스님 원적 1주기에 함께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덕상 스님은 "수많은 사부대중이 함께한 모습을 보니 생전 은사 스님이 대중과 지역사회에 쌓아온 복덕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며 "앞으로도 하심하는 마음과 화합중의 정신으로 스님께서 남긴 불갑사 도량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만당 스님은 1964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불갑사를 찾았다가 수산 지종 대종사와 인연이 돼 1991년 출가했다. 1992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6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기획국장,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제15~17대 중앙종회의원, 제17대 중앙종회 부의장 소임을 맡아 2000년대 종단 발전을 이끌었다.

2001년부터 불갑사 주지로 쇠락했던 사격을 일신시키기도 했다. 특히 백제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존자의 전법 발자취를 탐사하고 고증을 거쳐 백제불교 초전성지 마라난타를 창건하고 2001년부터 불갑사에서 마라난타불교대학을 운영해 현재 22기까지 500여 명의 불자를 배출했다. 원적 전까지 제18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으로 종단 안팎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7월 4일 새벽 법랍 33년, 세수 61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강진 피해 베네수엘라에 자비 손길을"

복지재단·동행·더프라미스
이재민 일상 회복 위한 모금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현장 모습.
사진 제공=아름다운동행

6월 24일(현지 시각)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이하 동행),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한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와 라과이라주 일대를 강타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으로 2000여 명이 숨지고 약 5만명이 실종됐다. 주택과 병원, 학교 등 건물 수만 채가 붕괴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속출했고, 주민 대부분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식수와 식료품 등 기본적인 구호 물자가 부족한 데다 의료 체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사회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재단**은 8월 2일까지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 모금액은 긴급 구호 물품, 식수·식료품, 의료·생계 지원 등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02-6334-2208, 하나 271-910006-64104

동행은 7월 31일까지 모연에 나서며 △긴급 식량 및 식수 보급 △응급의료물품·의약품·생필품·위생용품 지원 △피해 지역 복구 등을 지원한다. 02-737-9595, 농협 301-0366-4563-11·국민 023501-04-263588

더프라미스는 긴급 모금과 함께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단계로 현지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는 화이트헬멧, 이스라에이드 등 협력 단체의 구호 활동을 지원한다. 2단계에는 구호 팀을 직접 파견하고, 구호 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심리 치료 등 돌봄 활동을 펼친다. 3단계로는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위한 지원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02-735-3119, 신한 100-035-864047 이현희 기자

임중연 교수 "AI·로봇 스님, 수행·포교 돕는 '방편'"

조계종연구소 등 7월 3일
'AI 혁명과 불교' 학술대회



AI 로봇 스님 '혜안'을 개발한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사진〉가 "AI와 로봇 스님은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행과 포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7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AI 혁명과 불교' 학술세미나에서 '혜안 AI·로봇 스님의 소개'를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먼저 '혜안' 개발 배경에 대해 "사찰 현장에서는 안내와 응대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는 우울과 불안, 외로움 등 정서적 고립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MZ세대 포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기존 사찰에서는 정서적 교감이 어려운 키오스크와 교리의 정확성 및 환각 문제를 안고 있는 범용 챗봇 등이 사용돼 불교적 특수성과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임 교수가 이끄는 AI·안전로봇 혁신연구센터는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로봇 센서 소자, 로봇 안전 시스템 등을 연구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동하고 환각 가능성을 최소화한 불교 특화 AI 로봇 '혜안'을 개발했다.

임 교수는 "혜안은 듣고, 헤아리고, 응답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작용 역량을 강화하고, 선명상 등 마음돌봄 콘텐츠를 접목해 독거노인과 1인 청년, 자폐 청소년 등 정서적 고립 계층을 위한 불교 기반 돌봄 로봇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업그레이드를 거쳐 내년 4월 불교박람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AI의 교리 답변은 정확성과 검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야겠지만 법문과 수행 지도, 종교적 판단은 인간 스님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은 "'혜안'의 미래는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끝내 인간 승가의 몫으로 남길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데 달려 있다"며 "'혜안'은 '권위의 대체'가 아니라 '관계의 촉발' 역할을 해야 한다. 사찰을 처음 찾은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더 깊은 수행과 법문이 필요한 순간 인간 스님과 승가 공동체로 연결하는 가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아름다운동행, 튀르키예에 음수대 기증

7월 4일, 대지진 피해 회복 지원
교육·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이 음수대를 살피고 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이하 동행)이 2023년 발생한 대지진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튀르키예를 찾아 식수 제공과 교육·자립 지원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7월 4일 튀르키예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시(İskenderun)를 방문해 '아름다운동행 공용 음수대' 기증식을 진행했다.

동행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대지진 이후 주거·보건 등 핵심 기반 시설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 오염과 석회질 유입 등으로 주민들은 위험 식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식수를 제공하고자 이번 기증식을 마련했다. 음수대는 현지 카이마캄 관청의 제안으로 도시 공원에 설치됐으며, 정수·냉각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스켄데룬 위스크달 컨테이너 마을에서는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펼쳐졌다. 동행은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초청해 재봉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주민들의 기술 습득과 자립 기반을 도왔다. 학생들을 위해 태블릿 PC를 갖춘 공부방과 도서관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이현희 기자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및 비전선포식

20 Anniversary
생명나눔 20년,
생명의 꽃을 피우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6년 7월 21일 창립 이래 지난 20년 동안 장기기증희망등록, 자살예방, 사전연명의료의향등록사업, 난치병 환우돕기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 운동을 펼치며 많은 분들과 함께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명 나눔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시어 축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존중과 나눔의 정신이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귀한 걸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심 산 합장

2026. 7. 21 (화) 14:00 | 홍법사

주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문의 051) 853-0429
후원 부산은행 097-01-012720-8 예금주 : (사)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새 도량 건립 '본격화'

6월 28일 현지서 기공법회
법당·마음강당 조성 추진
30년 독일 현지 전법 결실
유럽 수행공동체 도약 기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독일과 유럽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이 새 도량 건립 불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 스님)이 6월 28일(현지시각) 독일 카아스트(Kaarst)에 위치한 독일지원 신축 부지에서 새 도량 기공법회를 봉행하고 유럽 수행공동체로의 성장을 위한 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기공법회에는 한마음선원 국내외 사부대중과 독일지원 신도들을 비롯해 카아스트 전·현직 시장과 가톨릭·개신교·이슬람교 등 이웃 종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독일지원은 2015년부터 불교·가톨릭·개신교·종교학자 등이 참여하는 '카아스트 종교 간 대화(Kaarster Glaubengespräch)'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와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공법회 역시 지난 30년간 지역사회와 쌓아온 신뢰와 화합을 보여주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새 도량이 종교와 문화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수행공동체가 되기를 발원했다.

이번 불사는 법당과 마음강당을 조성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1996년 개원 이후 30년간 독일 사회에 뿌리내려 온 한마음 수행공동체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치사를 통해 대행 선사가 독일지원에 내려준 "눈 뜨고 귀 열린 세계인들이 마음을 깨달아가는 한마음 도량"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지난 30년간 도량과 신도들이 함께 성장해 온 시간을 돌아봤다.

혜수 스님은 "개원 당시 어린이들이 장한 청년으로 성장해 선원의 큰 일꾼이 되고, 신도들도 세월과 함께 마음 도량을 넓혀왔다"며 "지금 다시 불사를 시작하지만 이미 이 도량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둥과 거목으로 큰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공법회를 함께한 지역사회와



6월 28일(현지시각) 독일 카아스트 신축 부지에서 열린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새 도량 기공법회에서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이 치사를 하고 있다.

이웃 종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 불사를 인연으로 눈 뜨고 귀 밝은 인연들이 더 많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일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독일지원의 새로운 도약을 격려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독일지원이 이어온 수행과 전법의 원력을 되새기며 새 도량 불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혜솔 스님은 "법당 불사는 개인이 깨어나 지혜로워지고 가족이 화목해지며, 진정한 삶의 뜻과 걸림 없는 무애행을 배우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며 "새 불사를 계기로 독일지원의 간절한 발원이 다시 점화돼 한마음의 에너지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스욕 에플레 독일지원 회원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국내외 사부대중과 지역사회, 이웃 종교 관계자들의 참석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30년간 독일지원이 걸어온 여정과 새 도량 불사를 통해 이어갈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했다. 독일지원이 수행과 전법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및 이웃 종교와 교류하며 성장해 온 과정을 돌아보고, 새 도량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수행하며 한마음의 가르침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했다.

만프레트 후터 독일 본대학 명예교수는 독일 한마음아카데미의 의미와 역할을 소개했으며, 기도 휠스만 건축가는 새 도량의 조감도와 건축 계획을 설명했다. 새롭게 조성될 공간은 법당과 마음강당을 중심으로 수행과 교육, 만남과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도량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독일지원의 설립 배경에는 독일 물리학자 헬무트 글루브레히트 교수와 대행 선사의 인연이 있었다. 글루브레히트 교수는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함께 발전해야 하며 인간의 내면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깊이 공감했고, 유럽에서도 이러한 수행의 길을 접할 수 있도록 독일지원 설립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원력 속에서 독일지원은 1995년 독일 중부 뒤셀도르프 근교 카아스트 지역에 도량 매입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포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듬해 지원장 혜진 스님과 총무 혜백 스님이 독일에 도착해 개원을 준비했으며, 1996년 10월 6일 대행 선사를 모시고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당시 대행 선사는 물질세계만 고도로 발전하고 정신세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설했다. 이어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이 아닌 가운데 함께 발전해야 인간이 자유를 얻고 세계의 화합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지원은 이러한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수행과 전법, 번역·출판, 문화교류와 종교 간 대화를 이어왔다. 1998년 독일불교연합(DBU)에 가입해 현지 불교계와의 교류를 확대했으며, 한국어·독일어 홈페이지 개설과 대행 선사 법문집 및 우화집의 독일어 번역·출간 등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유럽 사회에 꾸준히 소개해 왔다. 1999년 라팅엔 시립홀에서 열린 대행 선사 독일대법회 '해탈의 문'에는 약 2000명의 독일인이 참석했으며, 2001년 에센 글루가홀에서 열린 독일대법회 'Einklang'에는 약 4000명이 동참했다.

이후 독일지원은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 참가, 독일 신도들의 한국 성지순례, 독일어 법문집과 오디오북 출간, 종교 간 대화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독일 사회 속에 한마음 수행공동체의 기반을 다져왔다.

독일지원은 이번 법당과 마음강당 불사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이어온 수행과 전법, 지역사회 및 이웃 종교와의 교류 기반을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

"포교사 역할 재정립·제도 안정화 시급"

조계종 포교사단 40주년 토론회
미래세대·청년 포교사 양성
온라인·디지털 포교 부족 고찰

조계종 포교사단 40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변화하는 종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교사 역할 재정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청년 포교사 양성과 전문교육 체계 구축, 디지털 포교 역량 강화 없이는 미래 포교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는 7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포교사단 40년 성찰과 미래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불교 대전환 시대, 포교사단의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포교사단 40년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포교사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종안 포교사단 부단장〈사진〉은 발제 '불교 대전환 시대, 포교사 제도의 방향'에서 현행 포교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활동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박 부단장은 "교구본사나 재적 사찰 주지 스님 및 포교국장 스님의 소임 이동 등의 교체시기에 수년간 공들여 놓은 법회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찰 스님들의 임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조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종단과 교구 차원에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해 현장의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청년 및 MZ 세대와의 접점 약화와 온라인·디지털 포교 역량 부족도 제기했다. 청년 포교사 집중 양성이 필요성을 강조한 박 부단장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젊은 포교사들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젊은 층이 포교사 활동에 매력을 느끼고 동참할 수 있도록 청년 포교사에 대한 장학 지원, 전문 역량 인증제(자격증제도), 유연한 활동 시간 보장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대교체 없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 젊은 포교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판을 짜주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포교 전략도 주요 화두였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김응철 중앙승가대학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홈페이지, 카페, 밴드 등 기본적인 SNS 활용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SNS를 활용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 소식과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디지털 보시'를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불교 대전환 시대, 포교사 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김관태 전 조계종 포교원 포교과장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포교사 제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교사를 단순한 봉사 인력이 아닌 전문 재가포교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지운 기자



반복되는 재해…"희생자 추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7월 6일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철도 공사 현장에서 숨진 이주노동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들은 사고 진상 규명과 원청의 책임 조치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희 기자

"화두, 머리 아닌 몸으로 하는 공부"

동국대 종학연구소, 7월 3일
'간화선 수행'…수불 스님 법문

"이번 수행 기간에는 목 위로 올라오는 공부는 하지 말라. 화두는 머리로 하려면 안 된다. 온 몸으로 하는 공부다."

동국대 불교학부 석좌교수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은 7월 3일 만해관 좌선실에서 열린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 입재 법문에서 대중들에게 간화선 수행의 자세와 화두 참구 요령을 일렀다.

스님은 수행 중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장애로 졸음을 들었다. 수불 스님은 "앉아서는 졸지 말고 몇 시간이라도 좋으니 실컷 자고 깨끗한 마음으로 공부하라"며 "잠은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서도 안 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또 수불 스님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이 해오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지기도 한다"며 "나는 화두만 들면 된다. 화두에만



관심이 있지 번뇌망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수불 스님은 대중에게 손가락을 세우고 튕기게 한 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까"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스님은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입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그것을 '마음'이라고 말한다고 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들에게 믿음과 각오도 누차 당부했다. 스님은 "믿고 해야 한다. 오로지 간절히 참구하다"고 입재 대중을 격려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출재가자 60여 명이 참가해 7월 9일까지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올여름도 전국 산사서 '불교영화' 만난다

2026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7월 14일, 평창 월정사서 개막
9월까지 20여 편 영화 상영

2026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가(OIBFF)가 7월 14일 평창 월정사를 시작으로 올여름 전국 산사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정원주·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주최·주관하는 '2026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이하 OIBFF)'가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요 사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영화제에는 장편영화 '절해고도' '젠(ZEN)' '더 컵(The Cup)' '낭낙'을 비롯해, 전 세계 114개국에서 총 1743편의 단편영화가 출품됐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편작 20편(15개국)이 영화제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7월 14일 평창 월정사에서 영화 '절해고도' 첫 상영과 김미경 감독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 월정사 글로벌 리더 여름 캠프 프로그램으로 영화제의 막을 올렸다. 7월 18일 대구 동화사에서는 영화 '젠' 상영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8월 8일 고창 선운사에서는 영화 '더 컵' 상영과 여름수련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8월 22일에는 양양 낙산사에서 영화 '젠' 상영과 서핑 템플스테이, 가수 하림의 공연이 마련된다. 또 8월 29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는 영화 '절해고도' '더 컵' 상영 및 행복바라미 음악회가 열린다. 9월 12일 제주 관음사에서는 영화 '더 컵' 상영과 '어린이와 함께하는 연극&영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박지운 기자

기자칼럼

다시 차별금지법을 생각한다

고교야구장에서 터져 나온 응원 구호가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6월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 대회의 배재고와 광주일고의 경기에서 배재고 학생들은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을 율동과 함께 했다. 언급된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는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하다 논란을 빚은 마케팅 문구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응원이 SNS와 언론에 거론되며 5·18민주화운동과 광주 지역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확산됐으며 논란은 경기장을 넘어 사회적 공분으로 확산됐다. 여기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러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구호와 율동을 맞추며 상대방을 조롱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교실의 학생들에게 혐오와 조롱이 일종의 놀이 문화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혐오는 거친 폭언으로만 오지 않는다. 때로는 장난, 밈, 응원, 패러디, 문화코드, 또래집단의 웃음으로 모습을 바꾼다. 혐오 문화가 놀이화되기 시작하면 가해자는 '또래 집단 문화의 재미'라는 수식에 숨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정작 보호돼야 할 피해자는 '예민하다'고 치부되며 또 다른 상처를 받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차별금지법'을 생각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어떤 말과 행동을 차별로 보고, 어떤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킬 것인지 정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혐오가 놀이가 되기 전에 멈추게 하고, 차별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지 않게 하는 공적 기준이 필요하다.

불교계가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존엄하며, 서로 의존해 살아간다는 연기의 통찰 위에 서 있다. 타인의 고통을 웃음거리로 삼는 말은 불교적으로도 구업(口業)이며, 악구(惡口)다. 혐오 표현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공업(共業)이다.

물론 법 하나가 제정됐다고 해서 사회의 혐오 문화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혐오와 편견의 반대편에서 서서 평등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불교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친구, 자녀, 동료들이 알게 모르게 행하는 혐오 발언에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이를 바로 잡아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무지에서 비롯된 혐오를 지혜로 돌리고, 조롱의 언어를 자비의 언어로 바꾸는 일. 그것이 불교계가 사회 전반의 혐오 문화를 줄이기 위해 먼저 선행해야 할 과제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① 총무원장의 역할과 선출 방법

한국불교 미래를 선택한다

오는 9월 3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진다. 총무원장은 조계종단을 대표하는 최고 행정책임자로,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도자다. 현대불교 신문은 총무원장 선거 기획보도를 통해 총무원장의 역할과 권한, 선출 제도, 종단 안팎에서 제기되는 과제와 시대적 요구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오는 9월 3일 치러진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종단의 최고 행정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도자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특별취재팀

이번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앞으로 4년간 한국불교의 방향과 종단 운영의 기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총무원장은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을 아우르며 종단의 주요 정책을 이끄는 최고 행정책임자다. 승가교육과 포교, 재정과 인사, 문화와 복지 정책을 이끄는 것은 물론 사회 현안에 대한 한국불교의 입장을 대변한다.

총무원장은 중심제로

현재와 같은 총무원장 중심 체제는 여러 차례의 제도 개편을 거쳐 자리잡았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당시에는 종정이 종단을 대표했다. 종정은 법통의 상징을 넘어 계단 지정, 재산 관리, 주지 임면, 종법 제정까지 담당하는 사실상의 최고 권한자였다.

1975년 종헌 개정으로 총무원장을 종정이 지명하고 중앙종회가 동의하는 방식이 도입됐고, 1977년에는 종무행정 통리권이 총무원장에게 이관됐다. 이어 1981년 종헌 개정을 거치며 종정의 행정권은 대부분 총무원장에게 넘어갔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는 종정이 종단의 신성과 법통을 상징하는 최고 정신적 지도자를 맡고, 총무원장은 종단을 대표하며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종단 최고 행정책임자

종헌 제54조는 총무원장을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고 규정한다.

총무원장의 권한은 크게 종단 대표권과 행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종단 대표로서는 종헌·종법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종법 집행을 위한 종령을 제정한다. 종단을 대표해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고 징계의 사면·경감·복권 및 포상을 종정에게 품신하는 권한도 갖는다.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총무원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교역직을 임면하고, 종헌·종법에 따라 사찰 주지를 임면한다. 종단과 사찰 재산을 감독하고 주요 사찰의 예산 승인 및 조정권도 행사한다.

또한 종무회의 의장으로서 예산과 결산, 종책, 종헌·종법 개정안, 주요 재산 처분 등 종단의 핵심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3원 통합…더 커진 책임

총무원장의 역할은 지난해 종단 조직 개편으로 한층 확대됐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승가교육은 교육원, 포교는 포교원이 담당하는 '3원 체제'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으로 통합되면서 교육과 포교 기능이 다시 총무원 중심으로 재편됐다. 총무원장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왜 간선제 택했나

총무원장 선출 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통합종단 초기에는 종정 지명이나 중앙종회 선출 방식이 운영됐지만 특정 문중과 계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94년 종단개혁 이전에는 총무원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종단 운영이 불안정했다.

이에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더 많은 종도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각 교구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현재의 간선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별 선거인단이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총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진다. 사진은 2017년 열린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현행 제도 시행 30여 년이 지나면서 간선제의 대표성과 민주성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총무원장이 되려면

총무원장 후보는 승납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여야 한다. 여기에 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3년 이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또는 위원 경력 등 일정한 종무 경력을 갖춰야 하며 종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후보 등록 전까지 겸직이 금지된 종무직에서는 사퇴해야 한다.

321명 선거인단의 선택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에서 선출되는 선거인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구성된다.

각 교구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5일 사이 교구종회를 열어 본사 주지를 포함한 10명의 선거인을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 자격과 선출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교구본사 주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선거인단 구성은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이며, 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21일까지 3일간'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9월 3일에 치러지며, 후보자등록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 후보 등록 선언 및 정견 발표, 기자회견은 1회에 한해 할 수 있다. 종책자료집은 32면 이내의 인쇄물 1종만 작성할 수 있으며, 수량은 선거권자의 2배수 이내로 한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기간 중 각 후보자가 참가하는 종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과반 득표해야 당선

투표는 선거인단의 1인 1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재적 선거인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곧바로 당선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그래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결선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승납이 많은 후보를, 승납까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당선인은 원로회의 인준을 받은 뒤 총무원장에 취임한다.

비승가적 선거운동 금지

종법은 총무원장 선거를 수행자의 선거답게 치르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후보자는 금품과 향응 제공, 사찰 주지직 약속, 인신공격, 집회 개최, 기부 권유 등 비승가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종무기관 또한 직권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총무원장 선거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역시 이러한 종헌·종법의 틀 안에서 향후 4년간 한국불교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게 된다.

"사전도, 뉴스도 종교 용어 편향"

7월 7일 조계종 종평위 발표회
국어사전·온라인 뉴스 사례 확인
"공공언어 균형 회복 노력 필요"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용어 간 언어적 불균형이 만연해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공공언어 기준을 마련하는 사전과 대중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뉴스가 종교 어휘와 관련해 언어적 불균형을 재생산하고 왜곡된 관념을 심는다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를 '표준', 타 종교를 '주변'으로 인식하게 하는 언어 구조가 고착되며 불교 언어에 대한 '은밀한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는 7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종교 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사전 '우리말샘'에 등재된 종교 용어의 정의와 예문을 분석해 불평등 사례를 조명했다.

'우리말샘'에 절은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로 정의돼 있다. 김 교수는 "절은 불교의 교학·포교·공동체적 성격이 배제된 채 '집'으로만 표현된 반면, 교회는 신앙 양식·공동체·사회적 확장성이 강조된 긍정적 서술로 구성된다"며 "사찰을 '집'이라는 범주에 가두는 것은 불교 공간의 위상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예문 구성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절은 '초파일 날 절에 가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절을 찾는다'처럼 특정한 날이나 불안할 때 찾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교회는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간다'처럼 신앙 활동을 하는 일상적 공간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제한적·개인적 차원으로 절을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예문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사전은 언어 현실을 기록하는 중립적 장치가 아니라 특정 종교를 표준으로 삼아 타 종교를 주변화하는 담론적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일상 언어 속 미세 차별은 종교 간 위계를 무의식적으로 재생산하는 위험을 내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언어 개혁을 통해 종교 간 위계를 허물고 언어의 포용성과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편향은 온라인 뉴스에서도 확인됐다. 심태은 한경국립대 브라이트칼리지 교육연구소 조교수는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를 활용해 최근 1년간 종교 관련 어휘의 사용 양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도'는 하나님·목사와, '예배'는 교회·찬양·청년과, '은혜'는 하나님·구원 등 기독교 맥락과 결부돼 사용됐으며, 비교적 불교적 의미를 유지한 '수행' 역시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표현으로만 활용됐다. 심 교수는 "온라인 뉴스도 기독교를 표준으로 하는 언어 체계를 재생산하고 있다"며 "다종교 사회 속 문화적 소통과 공존을 위해 각 종교의 고유한 언어와 서사가 동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평위는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교 용어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종평위는 "학계와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와 협력해 종교 언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7월 7일 '종교 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 02일 도착
▶ 동참금 : 299만원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10월14일 출발~10월20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6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6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9월02일 출발~17일 도착
▶ 동참금 : 590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출발일 : 9월04일~9월08일(5일간)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1월24일 출발~12월03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 7대 성지순례, 아잔타석굴 13일
출발일 : 10월20일~11월01일(13일간)
■ 일정: 인천-델리-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산치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성지순례 6일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6일간)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700년 불연, 지공 화상 존상 통도사 봉안

〈佛緣〉

7월 8일, 설법전 및 삼성각
금강계단 보살계 설행 인연
봉안식 앞서 율원 복장의식
한·인도 교류 새 이정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7월 8일 영축총림 통도사 삼성각에서 열린 '지공 화상 존상 봉안식'에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덕 스님, 고량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 등 내외빈이 존상 제막을 하고 있다.

700여 년 전, 고려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인도의 고승 '지공 화상'이 존상의 모습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과거 지공 화상이 직접 보살계를 설행했던 영축총림 통도사에 존상이 정식 봉안됨에 따라, 한국과 인도가 700년을 이어온 불교 교류의 역사에 뜻깊은 이정표가 세워졌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7월 8일 설법전과 삼성각에서 '지공 화상 존상 봉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봉안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아울러 고량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 아시시 바베 인도 국제문화연구센터(ICCS) 소장, 국제불교도연맹(IBC) 관계자 등 내외빈이 동참해 양국의 우의를 다졌다.

지공 화상(指空, ?~1363)은 14세기 후반 고려 충숙왕 때 한국을 방문한 인도의 고승이다. 특히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예불을 올리고 보살계를 설하며 한국불교의 계맥 전수와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나옹, 백운, 무학 대사 등 고려 후기 불교에 새 바람을 일으킨 삼화상(三和尙)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번에 봉안된 지공 화상 존상은 화상의 모국인 인도에서 직접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인도 국제문화연구센터와 국제불교연맹의 지원을 받아 동(銅) 재질로 제작됐으며 폭 40cm, 높이 50cm 규모다. 2024년 4월 인도 측의 제안으로 시작된 존상 조성 불사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학술 검토와 자문을 거쳐 한국과 인도의 긴밀한 협력 아래 2년여 만에 원만 회향했다.

본 행사에 앞서 통도사는 지난 7월 1일 삼성각에서 율주 덕문 스님을 비롯한 율원 스님들의 집전으로 지공 화상 존상 복장의식을 봉행하며 성보로서의 의미와 생명력을 더했다.

설법전에서 열린 1부 봉안식은 주지 스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존상 기증서 전달, 내빈 축사, 종정 성파 대종사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참석자들이 삼성각으로 이동해 지공 화상 존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사부대중은 새롭게 모셔진 존상에 헌향하며 참배한 뒤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특히 제막식 이후 이어진 행사에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 사리탑을 참배하며 봉안 행사의 원만 회향을 축하했다.

성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공 화상과 통도사의 각별한 인연과 더불어 종교의 참된 역할을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가락국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인연부터 이어져 온 양국의 오랜 역사를 짚으며 "통도사에 지공 화상 존상을 모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곳을 다녀갔기 때문이 아니라, 지계 청정도량인 금강계단에서 문수보살 무생계를 설함으로 한국불교의 계단(戒壇)과 계맥 전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했다.

이어 "언어도 통하지 않고 교통도 없던 시절,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법을 전한 선사들의 간절한 원력을 깊이 새겨야 한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불교가 더욱 밀착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덕 스님은 환영사에서 "특별히 관음재일을 맞아 사부대중과 함께 기쁜 행사를 열게 되어 더욱 환희롭다"며 "기존 삼화상 진영이 봉안된 곳에 지공 화상 존상을 함께 모시게 된 인연으로, 한국과 인도의 종교와 문화가 활발히 소통하고 왕래해 세계 평화와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든든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금강경 천일기도 원력 '자비 복지'로 회향

부산 행복선원, 복지시설 건립 발원
법타 대종사 증명 보살계 수계법회



부산 행복선원이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건립이라는 원력을 품고 이어온 금강경 독송 1000일 기도를 회향했다.

행복선원(주지 윤광 스님)은 7월 5일 법당에서 '금강경 독송 1000일 기도 회향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기도 회향의 환희심을 보살행으로 이어가겠다는 신도들의 다짐을 담아 특별 수계 법회로 이어졌다. 영천 은해사 조실 법타 대종사가 증명법사로 법좌에 올랐으며, 98명의 불자가 연비를 받고 불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법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타 스님은 "삼귀의와 오계를 받아 지니는 순간이 곧 참된 불자로 다시 태어나는 때"라며 "계율은 금지가 아니라 이웃과 공경하며 살아가기 위한 근본 도리"라고 설했다. 이어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무주상보시'를 언급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맑게 가꾸어 주변에 기쁨을 전하는 것이 곧 참된 보살행"이라고 당부했다.

행복선원의 1000일 기도는 지난 2023년 10월 22일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을 서원으로 삼고,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며 신심을 다져왔다. 행복선원은 기도 기간 중 사단법인 '카루나'를 설립해 원력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무료급식을 비롯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과 환경보호 운동을 꾸준히 펼치며 복지 도량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주지 윤광 스님은 1000일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준 대중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윤광 스님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위기 속에서도 신도들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오늘의 회향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북구 지역사회에 부처님의 자비를 회향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달라이라마 91세 장수기원 법회

7월 6일, 부산 관음사서
장학금 2100만원 전달



달라이라마의 91세 생신을 축하하고 무병장수를 발원하는 법석이 부산 관음사에서 펼쳐졌다.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회주 지현 스님)는 7월 6일 원통보전에서 '달라이라마 성하 91세 생신 축하 및 장수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달라이라마가 평생 강조해 온 비폭력과 자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한국과 티베트 불교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에서 수행 정진 중인 티베트 스님 30여 명을 비롯해 한국과 티베트 사부대중 300여 명이 함께했다. 법회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관세음보살 구루요가 기도, 만달라 및 까닥 공양, 관음의식 기도 등 티베트 전통 의식과 한국 불교 의례가 함께 진행됐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자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자비를 실천해 모든 중생이 행복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전하며 "달라이라마 성하의 가르침과 티베트 승가와의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자비와 평화의 씨앗을 우리 사회에 널리 퍼뜨리겠다"고 서원을 전했다.

한국티베트센터 광성사 주지 소남 스님은 법문에서 "남을 이롭게 하려는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성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생신 선물"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불교의 핵심인 자비와 공성의 지혜를 함께 닦으며 중생을 위한 이타행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관음사는 하안거 기간을 맞아 국내에서 수행하는 티베트 스님들에게 승보공양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전법 원력을 응원했다. 아울러 동학사 팔정회(수현 스님 외 15명) 소속 스님들이 16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해 총 2100만원의 기금이 전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불곡사 '우담문화관' 낙성

7월 8일, 복합문화시설 조성
"불교문화·신행 활성화 앞장"



창원 불곡사(주지 도홍 스님)는 7월 8일 우담문화관 및 관람객 편의시설 낙성대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불교문화 발전과 신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간의 출발을 알렸다.

주지 도홍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부대중의 원력과 정성이 모여 오늘 뜻깊은 낙성식을 맞게 됐다"며 "우담문화관은 불곡사의 역사와 정신을 담아내는 문화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중 어른 스님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누구나 차 한잔의 여유를 나누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우담문화관이 수행과 휴식, 문화가 함께하는 열린 도량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불교문화의 중심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주 근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담문화관 낙성은 건물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모여 이룬 수행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이 공간이 포교와 수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행도량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정신 연화학당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담문화관은 불자들의 신행공간이자 지역 주민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문화공간"이라며 "이웃과 함께 자비를 실천하고 수행 인연을 이어가는 소중한 도량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담문화관은 문중 선대 스님들의 유품 전시 공간과 휴식·문화공간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신도와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행 및 문화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스마트폰 끄고 마음 켜다"

부산 홍법사, 대학생 선명상
8월 21~23일, 20명 대상으로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가 학업과 진로 등 현실적 고민에 지친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치유의 장을 마련한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한 사찰에서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홍법사는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선명상 템플스테이 '소리와 침묵으로 나를 깨우다'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명상 대중화에 발맞춰 기획됐으며, 극심한 경쟁과 스마트폰 과의존 등 각종 디지털 자극에 노출된 청년 세대에게 사찰을 마음 회복의 베이스캠프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템플스테이와 달리 참가자 전원이 '디지털 디톡스'와 '묵언수행'에 동의해야만 동참할 수 있는 특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2박 3일 동안 일상적인 대화와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몸과 마음의 감각을 일깨우는 데 집중하게 된다.

이번 템플스테이의 백미는 2일 차 저녁에 열리는 '주지 스님과 마음 선문답'이다. 참가자들이 묵언수행 중 내면에서 끌어올린 질문을 미리 작성하면,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불교적 지혜와 선명상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한다.

참가 대상은 대학생이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접수 및 문의는 홍법사 템플스테이 사무국(010-8457-0343)으로 하면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김해 동림선원, 10년 불사 결실

지장전·불상 봉안 천일기도 입재
"김해 대표 포교 도량으로 성장"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 스님)은 7월 5일 3층 대법당에서 '10년 대작불사 3천일 기도 회향 및 지장 천일기도 입재 대법회'를 봉행했다.

동림선원은 2018년 4월 30일 '10년 대작불사 3천일 기도'에 입재한 후 대웅전 삼존불 점안, 목조원불 천불 조성, 범종·금고 봉안 등을 차례로 회향했다. 특히 올해 5월 문화공간 '동림'을 준공하며 10년 불사의 결실을 맺고, 이날 3천일 기도 회향과 함께 지장전 건립 및 지장보살 봉안 불사를 위한 새로운 천일기도를 시작했다.

주지 신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 그리고 불자들의 원력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장엄한 도량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많은 이들이 불연을 맺는 수행·포교 도량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주 약사정사 '만오밥상' 자비공양

7월 5일, 어르신 200명 식사 제공
조규일 진주시장 배식 봉사 동참



진주 약사정사(주지 진여 스님)가 만오 스님의 원력을 계승하기 위해 올해 4월 설립한 무료급식소 '만오밥상'에서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약사정사는 7월 5일 상봉동 '만오밥상'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급식 무료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진여 스님과 약사정사 신도회, 사단법인 원명 회원,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해 이른 아침부터 식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손길로 공양 준비에 나섰다. 이어 배식과 식사 보조, 정리정돈까지 맡으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다. 특히 조규일 진주시장도 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주지 진여 스님은 "무더위와 외로움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에 어르신들께 따뜻한 공양을 올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한 그릇의 밥이 단순한 식사를 넘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는 자비의 실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불교문인협회 37년사' 출판기념회

37년 역사 담은 사료집 발간



사단법인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 박숙자)가 7월 1일 부산 서면의 한 식당에서 〈부산불교문인협회 37년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협회의 37년 역사를 집대성한 사료집 발간을 기념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편찬위원장 혜총 대종사, 박숙자 이사장, 차정연 발행인을 비롯해 능지 스님, 보우 스님, 박혜숙 부산광역시문인협회 이사장과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이사,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부산불교문인협회의 문학적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찬위원장 혜총 대종사는 격려사에서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가꾸어온 역사가 앞으로 더욱 큰 결실로 이어져 부산 불교문학의 위상을 높여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숙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37년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회원의 원력과 문학에 대한 열정이 모여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이번 37년사가 부산불교문인협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세대에게 불교문학의 정신을 전하는 소중한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운문사 출가학교 회향…4명 '출가 발원'

7월 5일, 제1기 회향식 봉행돼
6박 7일 교육, 13명 전원 이수해
수료생 4명 "출가·은퇴출가 발원"

박지운 기자


운문사 제1기 바라밀출가학교 수료생 13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중 4명은 출가 및 은퇴출가를 발원했다.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는 7월 5일 '바라밀 출가학교 제1기 회향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운문사가 주관한 이번 출가학교에는 13명이 참가해 6월 29일부터 6박 7일간의 교육과정을 전원 수료했다. 수료생 13명 가운데 3명이 출가를, 1명이 은퇴출가를 발원하는 성과도 거뒀다.

운문사가 처음 개최한 바라밀 출가학교는 출가에 관심 있는 이들이 수행자의 일상과 수행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출가의 참뜻을 이해하고 수행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회향식에서 주지 은광 스님은 "'함께 시작해서 함께 끝을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는 수많은 마음이 오르내리지만, 그 마음을 잘 다독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깊이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건강하고 밝은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듯, 이번 6박 7일의 출가수행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진 수행의 씨앗이 돼 삶 속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초발심자경문〉의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탐물(百年貪物)은 일조진(一朝塵)'을 인용하며 "짧은 수행이라도 바른 마음을 닦는 공덕은 천년의 보배와 같다. 이번 수행이 참가자 모두의 삶을 비추는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한다"고 기원했다.

한 참가자는 "출가자의 삶이 막연하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6박 7일 동안 수행공동체에서 생활하며 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며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교육 기간 동안 새벽예불과 발우공양, 좌선, 기도, 운력, 강의, 스님과의 차담 등을 경험하며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했다. 예불에서는 부처님께 예경하는 의미를 배우고 발우공양에서는 공동수행의 정신과 감사의 마음을 익혔다. 좌선과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으며, 스님들과의 차담에서는 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고 수행자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평가에서 참가자들은 "출가를 단순히 생활환경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전환하는 수행의 길로 이해하게 됐다"며 "특히 운문사의 수행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며 출가 수행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며, 수행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운문사는 "이번 제1기 운영을 통해 출가 수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넓히고 미래 출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바라밀 출가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수행문화 체험과 출가 정신을 널리 알리는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생 펼친 공덕, '명예박사'로 회향

중앙승가대, 오정미 수석부회장 학위 수여



깊은 불심(佛心)과 원력으로 포교 신행 문화 진흥에 앞장서 온 오정미 조계사 신도회 수석부회장(법명 원법행)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승가대(총장 월우 스님)는 7월 8일 문수원에서 '오정미 수석부회장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오 수석부회장은 신도회를 이끌고 선종 사찰을 순례하며 안거 중인 스님들에게 지심으로 대중공양을 올렸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이사로서 대승보살행도 실천해왔다. 이 같은 공덕을 높이 평가한 중앙승가대는 교내 회의를 통해 오 수석부회장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량없는 복덕으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며 조계종 신도로서 최고의 지위를 얻은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학위 수여식에서 월우 스님은 학위기와 기념패, 꽃다발을 오 수석부회장에게 전달하고 축하했다.

학위 수여 직후 오 수석부회장은 불연(佛緣)을 맺게 해준 어머니와 지금의 자리를 있게 해준 중앙승가대, 조계사 사부대중 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 수석부회장은 "오늘의 영광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조계사 도반 여러분과 함께 정진하며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오늘 학위 수여를 계기로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사와 중앙승가대가 맺은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김포=신중일 기자

광주 광덕사 '누리하제 인문학당' 첫발

7월 3일, 시민인문강좌 개강
하성용 신부, 첫 강사로 참여
개신교, 원불교 강의도 예정


누리하제 인문학당이 7월 3일 광주 광덕사에서 하성용 신부의 강의로 첫발을 내디뎠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함께 모색하는 시민인문학당이 광주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릴레이 강연에 나서는 '누리하제 인문학당'은 7월 3일 광주 광덕사(주지 동진 스님)에서 첫 시민인문강좌를 개최했다. '평화와 공존, 우리의 시대를 묻다'를 주제로 마련된 인문학당은 종교 간 경계를 넘어 시민들과 정의와 평화, 공존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개강식에는 광덕사 주지 동진 스님을 비롯해 민판기 누리하제 인문학당 준비위원장, 하성용 가톨릭 서울대교구 신부,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 덕림사 주지 지선 스님, 정진욱 국회의원, 광주시·남구의회 의원, 고윤근 광주전남장학재단 이사장, 김영집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박인수 광덕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누리하제 인문학당은 종교와 세대, 계층의 차이를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자본과 경쟁 중심 사회에서 심화되는 갈등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찾자는 취지다. 준비위원회는 콩나물과 김치, 참기름, 고추장이 어우러져 비빔밥을 이루듯 각자의 고유한 색깔을 인정하며 문화와 예술, 인문학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해방의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첫 강연은 하성용 신부가 '절에서 듣는 신부님 이야기-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를 주제로 진행했다. 하 신부는 "정의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획일적인 공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라며 "약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차별이자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와 평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했다.

동진 스님은 환영사에서 "누리하제는 단순히 세상과 미래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반목과 갈등을 멈추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화합과 평화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문학당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희망을 살려내는 공간으로 오래도록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 준비위원장은 "누리하제 인문학당은 다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작은 해방구이자 쉼터"라며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차를 마시고 공부하며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공간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시민 인문학당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누리하제 인문학당은 8월 7일 임의진 목사의 '세상은 넓고 인생은 짧다', 9월 11일 강해윤 교무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사명과 원불교의 역할' 강연을 이어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원사 산신대재 보존회, 법인화 박차

7월 5일, 신원사서 임원회의



사단법인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 산신대재 보존회(이사장 성관 스님·신원사 주지, 이하 보존회)는 7월 5일 공주 신원사 세심당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법인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사장 성관 스님은 "보존회의 법인화는 산신대재의 역사적 원형을 연구하고 전통 제례를 계승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중악단과 산신대재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법인 설립 추진 경과보고에서는 보존회가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주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신원사가 기본재산을 출연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의 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충청남도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해 현지 실사를 마쳤으며, 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대원청년회, 경주서 워크숍 성료

진흥원, 7월 6~8일 황룡원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은 7월 6일부터 8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전국 대학생 불자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년 제4회 대원청년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Ⅳ'를 주제로 열렸다.

첫째 날에는 구상진 이사장의 특강 '대학생 불교 수련의 의의'가 진행됐으며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석굴암과 불국사를 순례하며 천년고찰의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바디 명상과 내면 탐색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마지막 날에는 마음챙김 명상과 모둠별 소감 발표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상진 이사장은 "대학생활 속에서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찾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청년들이 불교를 통해 인생의 가치와 지혜를 익히는 일은 개인은 물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세종 선명상축제 개막…"마음 치유의 장"

7월 5일, 광제사 · 전통체험관서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프로그램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 속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2026 세종 선명상축제'가 막을 올렸다.

세종 광제사(주지 탄대 스님)는 7월 5일 대웅보전과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광제사 마당에 핀 연꽃, 마음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2026 선명상축제' 개막식을 봉행했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조계종 미래본부와 광제사,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7월 한 달간 매주 일요일 총 8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불교 수행과 현대 치유 콘텐츠를 접목한 생활 속 선명상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개막식에서 주지 탄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평화는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선명상이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행문화로 자리 잡아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에 평화와 행복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개막 강연에서는 선명상 앰배서더 선중 스님(세종 보현정사 주지)이 '내 몸의 숨결, 내 마음의 친절'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났다.

12일에는 이지은 강사의 '선명상 핸드팬 음악치유'와 김하나 강사의 '사람 통역기,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진행됐다. 19일에는 담소 스님의 '미술 심리 치유'와 양두섭 강사의 '참선과 무예, 움직임 선명상', 26일에는 박상근 강사의 '기억의 숲에서 나를 만나다'와 선정 스님의 '소리 선명상'이 진행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한국불교대학, 권오덕 동문신도회장 취임

7월 4일 경내 옥불보전서 취임
"소통 · 화합해 수행 봉사 실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제28대 총동문신도회장에 권오덕 회장이 취임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주지 대륜 스님)는 7월 4일 옥불보전 4층 대법당에서 총동문신도회 제27·28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관음사 주지 대륜 스님을 비롯해 총동문신도회 임원과 동문 불자들이 참석해 제27대 총동문신도회장인 여실화 이영애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8대 총동문신도회장으로 취임한 법경 권오덕 회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주지 대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삶의 지혜가 살아 움직이는 수행도량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화합과 원력으로 신도회를 이끌어 한국불교대학이 더욱 성장하는 수행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8대 총동문신도회장에 취임한 법경 권오덕 회장은 "소통하는 회장이 되어 수행과 봉사가 조화를 이루는 도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불교대학은 수행 정진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도량인 만큼 신도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큰절 222기로 입학해 기수기장을 맡았으며, 4년간 지도법사로 활동했다. 이후 포교사 부루나회 총무국장과 부회장을 역임했고, 저녁반 지도법사 총괄팀장을 맡아 후학 양성과 포교에 힘써왔다. 또한 총동문신도회 봉사국장을 7년간, 부회장을 2년간 맡으며 신도 조직 운영과 봉사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붓다봉사단, 세계댄스페스티벌 후원 행사

7월 7일 콜롬비아팀 지원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과 김판쇠전주우족탕(대표 김동우·사단법인 붓다 복지관 운영단장)은 7월 7일 전주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콜롬비아 청소년 댄스팀을 후원했다.

이날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 회원들은 콜롬비아 댄스팀을 위해 정성스러운 식사 봉사를 진행했으며 천지사 주지 현진 스님을 비롯해 이재현 붓다봉사단장, 허남근 월간 붓다 편집장 등 봉사자 10여 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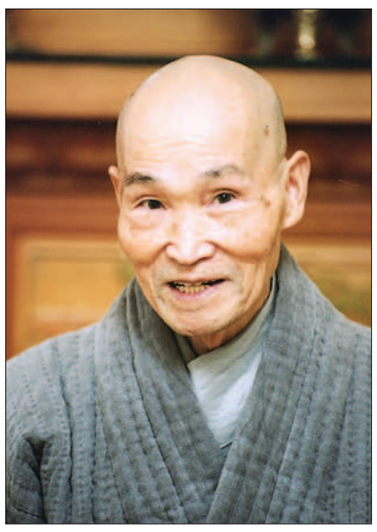
마이산 탑사 회주이자 사단법인 붓다 이사장인 진성 스님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존중하며 교류와 소통의 장을 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화 대종사 가르침 디지털로 집대성

동국대 불교학술원·벽산무주회
육성법문, 원고 등 2만2000건
웹 활용 위한 메타데이터 제작
"청화 스님 발자취 잘 담을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염불선을 주창한 선지식 청화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벽산무주회는 7월 7일 '청화 대종사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을 개최했다. 사진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왼쪽)과 벽산무주회 부의장 무상 스님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염불선 수행과 이론을 체계화한 선지식 무주 청화(無住淸華, 1923~2003) 대종사의 가르침이 아카이브로 구축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7월 7일 불교학술원장실에서 벽산무주회(문장 용타 스님)와 '청화 대종사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화 스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으로, 염불선 수행의 이론적 체계를 세워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며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실천한 것으로 유명한 스님은 1985년부터 태안사에서 3년 결사 묵언정진을 했으며, 1992년부터 미국 삼보사에서 수행하며 3년결사 등을 통해 해외 포교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청화 대종사 아카이브 사업'은 박인석 불교학술원 K-Buddhism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사업 성과는 불교학술원이 운영하는 '한국불교문화포털'의 '현대 고승' 테마에 등재해 내년 초 서비스할 예정이다. 벽산무주회가 보유하고 있는 청화 스님의 친필 원고, 육성 법문, 비디오 자료, 포교 교재 등 총 2만2000여 건, 2.7TB 상당의 디지털 유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웹 서비스 환경에 맞도록 표준 서비스 포맷으로 변환할 계획이다. 향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목록과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단의 목표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을 통해 청화 스님의 생애·수행·포교·사상 등 주제별 12항목 내외의 원고를 집필하는 등 학술적 고증도 진행된다. 원고는 배광식 청화사상연구회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을 비롯한 청화사상연구회 임원진이 집필해 대종사의 수행자로서 진면목과 깊은 수행의 경지를 밝힐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대종사의 행적과 수행처, 생생한 가르침을 담은 자료를 엄선해 지리정보(GIS)를 구축하면서, 수행의 발자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불국토문화지도에 연동시킬 계획이다.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조계종 호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화 스님의 청정한 수행과 삶의 발자취를 잘 담아서 한국 전통 수행의 본질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학술원의 벽산무주회가 보유한 디지털 자료를 잘 정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소중한 수행 전통과 문화를 널리 보급해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장 용타 스님을 대신해 업무협약에 참석한 벽산무주회의 부의장 무상 스님은 "부처님 열반 후 가섭 존자가 나서서 경과 율을 결집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부처님이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세계 1등 모범 수행자였던 청화 스님의 가르침이 아카이브화돼 세세손손 후대에 물려줄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청화 스님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문중 사업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국내 전문 학자들을 통한 스님의 평가와 자료 결집은 전 세계인들에게 공유·보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수행의 길로, 출가의 길로 들어서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성륜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명원 스님, 성륜사 주지 주원 스님, 청화기념관장 정헌 스님, 배광식 청화사상연구회장, 박경준 연구위원 등이 함께했다. 벽산무주회는 사업기금 5000만원을 불교학술원에 전달했다.

현재 전남 무안군 혜운사에 청화 대종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으며, 문도회인 벽산무주회는 대종사의 사상과 수행을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해 청화사상연구회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소외됐던 부불전·요사채 '보물' 지정

가평 현등사 극락전 등 6건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 등 4건
"불교문화유산 관심 계기 기대"


가평 현등사 극락전.


익산 숭림사 정혜원.

조선 중후기에 조성된 부불전과 요사채들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가평 현등사 극락전 등 부불전 6건과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 등 요사채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부불전은 부처·보살을 모신 중심불전과 이격돼 건립된 법당으로 나한전, 영산전, 원통전, 비로전 등이 있다. 요사채는 스님들이 거주하는 전각을 의미한다. 그간 부불전과 요사채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았지만 불전과 석불, 석탑 등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불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부불전과 요사채에 대한 가치조사와 발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10건의 부불전·요사채를 보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부불전은 △가평 현등사 극락전 △괴산 각연사 비로전 △고창 선운사 영산전 △순천 선암사 원통전 △순천 송광사 응진당 △경주 기림사 응진전이다. 함께 보물로 지정된 요사채로는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 △청양 장곡사 설선당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익산 숭림사 정혜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유산청은 "보물로 지정된 부불전과 요사채는 조선 중후기에 걸쳐 건립 및 중건된 것"이라며 "부불전은 조선 후기 전통목조건축의 양식적 특징과 기법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고, 요사채 역시 사찰의 수행 및 생활공간으로 건립돼 시대에 따른 생활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불전·요사채 10건의 보물 지정에 따라 향후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한층 높아지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하며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 사찰 부불전과 요사채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 관리단체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신안사 대광전'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 7월 8일 지정예고
16세기 건립…다포계 맞배지붕

조선 중기에 조성된 불전(佛殿)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금산 신안사 대광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산 신안사 대광전의 건립연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었으나 2007년 해체수리 공사 시 발견한 상량문을 통해 1638년 중창과 1840년 중수된 것이 확인됐다. 2023년 주요 부재에 대한 연륜연대 분석에서 1583년 부재가 다수 확인돼 대광전이 16세기에 최초로 건립된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대광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로, 맞배지붕이면서도 측면과 모서리에 공포를 배치한 게 특징이다. 또한 공포의 구성과 장식 요소 등은 대광전의 최초 건립시기인 16세기의 건축적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대광전 부재를 보면 일부 기둥에서 약간의 배흘림이 보이고, 기둥의 높이가 양 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귀솟음 형태로 만든 점, 창방과 보 등의 부재에서 소매걷이 기법이 보이는 점 등은 고식(古式)기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 가구 구조에서도 독특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어간은 대들보를 놓고 그 위에 별도의 동자기둥이 중보를 받치는 형식으로, 이는 주로 팔작지붕 건물에서 나타난다. 반면, 어간의 좌우 칸인 협칸은 내부의 높은 기둥[高柱]이 대들보 위의 중보까지 연결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한 건물 내에 서로 다른 두 방식이 혼용돼 있다.

국가유산청은 "여러 차례의 보수를 거쳤음에도 최초 건립된 당시의 부재와 치목기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보물로 지정 예고된 금산 신안사 대광전.

2026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태양광 만월등·소원성취등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칼라연등


만월등 (노랑/진분홍/초록/빨강/파랑)

자비연등


태양광 칼라 미니등

12cm(보라/파랑/초록/주황/진분홍/연분홍/적색/노랑), 등간격 65cm

소원성취등/정원등
황금등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13cm(진분홍)

20cm(주황)
광명연등


상점문의 및 안내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고려 발우·고승 유묵, 범어사서 마주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기념전

7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구 범어사 성보박물관서 진행
태안 출수 청자발우 38점 비롯
근현대 선지식 유묵 등 선보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12세기 고려시대 사찰로 향하던 중 거친 바다에 가라앉았던 청자 발우가 900년의 시간을 넘어 천년고찰에서 고승들의 법맥과 마주한다.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해 7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범어사 구 성보박물관에서 '900년의 기다림, 마침내 마주하다: 고려청자발우, 그리고 고승유묵' 특별기획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는 리모델링을 마친 구 성보박물관에서 선보이는 첫 전시로 의미를 더한다.

이번 전시는 약 900년 만에 세상 빛을 본 고려청자 발우 38점과 한국불교를 이끌어온 근현대 고승들의 유묵을 한자리에 모았다. 바닷속 시간은 멈춰 있었으나 산사에서는 스승에서 제자로 끊임없이 법맥이 이어져 왔음을 대비하며, 시공간을 초월해 전승되는 국가유산의 살아있는 가치를 조명한다.

전시는 총 3부로 나뉘어 전개된다. 1부 '푸른빛이 새어 나오다'에서는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출수된 청자 발우 38점을 전시해 당대 뛰어난 도자기술과 불교문화를 살핀다. 2부 '지나온 시간을 마주하다'는 수행자의 삶을 상징하는 발우와 불법 전승의 출발점인 수계(受戒) 관련 자료를 통해 불교 공동체의 의미를 짚어본다.


태안 앞바다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청자발우. 청자발우 38점이 전시된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휘호, '세계여일화(世界如一花)'.

전시의 백미가 될 3부 '검은 먹이 번지다'에서는 경허·용성·만공·만해·동산·동헌·성철 스님 등 근현대 고승들의 유묵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 그리고 기록으로 이어져 온 불교 정신과 살아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소개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전을 위해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와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는 축하의 뜻을 전하며 휘호를 내렸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두 기관이 해양문화유산과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연구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실이다. 양 기관은 매년 조선통신사선 무사항해 기원제를 공동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정오 스님은 "바다와 산사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어져 온 시간이 하나의 이야기로 만나는 뜻깊은 자리"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계기로 세계여일화(世界如一花)의 정신을 되새기고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은석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역시 "이번 전시가 우리 국가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텍스트를 넘어 삶의 지평으로

㊽ 오중현의(五重玄義)

五重玄義

〈앙굿따라 니까야〉 '깔라마경'에서 붓다는 법문을 듣고 실천하는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한다. "성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왔다고 해서, 권위 있는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맹신하지 말라. 스스로 심사숙고하고 실천하여 번뇌가 소멸됨을 확인한 뒤에야 받아들이라."

이 가르침은 오늘날 불경과 성경을 읽으며 성인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성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

텍스트에만 매달린 불경 독법은 자칫 맹목적 믿음과 경직된 사고를 형성할 위험이 있다. 오래 전에 성립한 경전의 말씀과 오늘의 삶이라는 맥락을 함께 살피지 못하면, 독서는 삶을 변화시키기보다 기존의 신념만 강화하는 데 그칠 수 있다. 경전의 참 뜻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자 너머의 의미를 읽어내는 해석학적 안목이 필요하다.

중국 수나라의 고승 천태 지의(538~597)는 〈법화현의〉에서 이러한 독법을 체계화한 '오중현의(五重玄義)'를 제시했다. 첫째는 제목에 담긴 뜻을 밝혀 핵심을 파악하는 '석명(釋名)', 둘째는 경전이 드러내는 궁극적 진리를 밝히는 '변체(辨體)', 셋째는 그 진리를 실현하는 수행의 종지를 밝히는 '명종(明宗)', 넷째는 그 가르침이 삶과 사회에 미치는 효용을 살피는 '논용(論用)', 마지막은 경전이 불교 교설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판단하는 '판교(判教)'이다.

이 다섯 단계는 경전을 단순히 해설하는 방법이 아니라, 본질과 실천, 역사적 맥락을 함께 통합하는 이해의 과정이다. 붓다가 강조한 '심사숙고'의 정신을 지의는 치밀한 해석 체계로 구체화한 셈이다.

이러한 관점은 서구 현대 해석학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서구 해석학은 종교개혁기의 성서 해석에서 출발하여 슐라이어마허를 거쳐 가다머에 이르러 철학적 해석학으로 발전했다. 가다머는 이해를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독자의 삶의 경험과 텍스트의 세계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지평의 융합'으로 보았다. 이는 제목에서 핵심을 파악하고 본질을 드러내며 실천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오중현의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결국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가리키는 삶의 방향을 따라 스스로 걸어가는 실천이다. 텍스트를 넘어 그 이면의 컨텍스트를 이해할 때 독서는 비로소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는다.

야부도천 선사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경책했다. "손가락 아래에서 달을 보려 하고, 문밖에서 아침을 찾으려 하는구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이 아니며, 문은 새벽을 막는 경계가 아니다. 문자와 형식에 머물면 진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경전의 언어를 넘어 그 말이 가리키는 삶의 세계를 살아낼 때 비로소 붓다의 가르침도, 모든 성인의 말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야부도천의 이 한마디는 텍스트에 갇힌 독서에서 벗어나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라는 준엄한 경책을, 오늘 책장을 넘기는 우리 앞에 다시 무겁게 내려놓고 있다. 〈화순 불암사 주지〉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 中 연수 성료

6월 24~27일, 베이징 등서
회원관 교류 및 견문 확대



전국의 성보박물관 관계자들이 중국에서 견문 확대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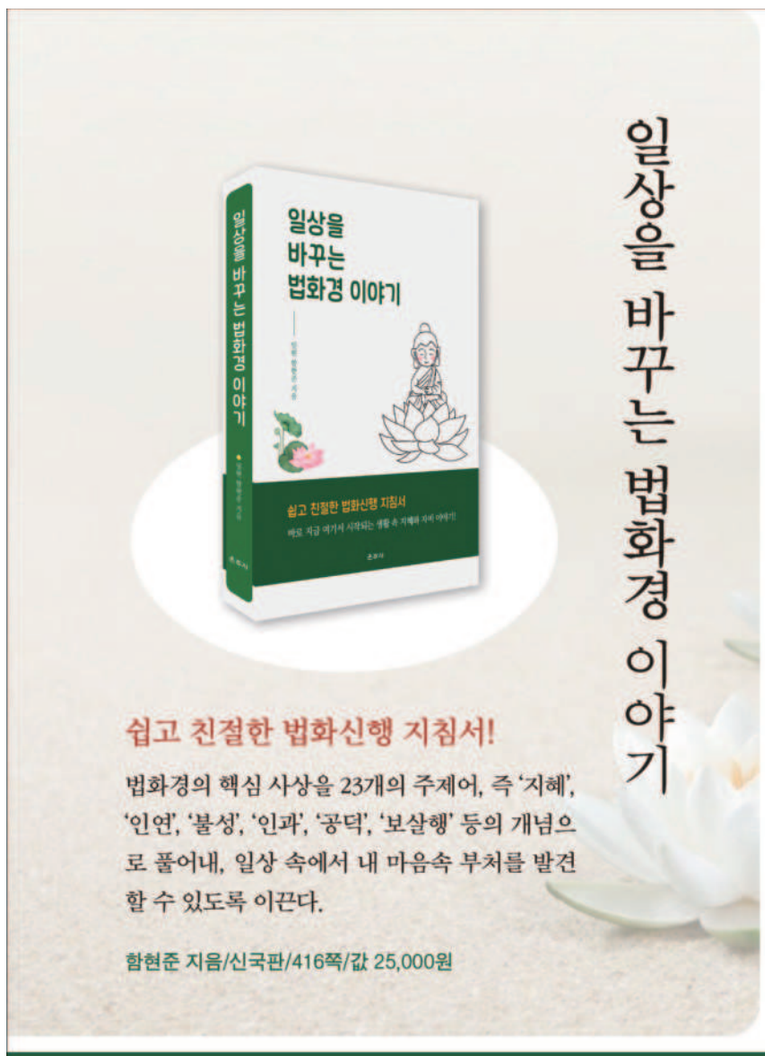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협회장 서봉 스님, 이하 협회)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청더(承德), 베이징(北京) 일원에서 '2026년도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 해외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 발족 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협회장 서봉 스님을 비롯해 주경(수덕사근역성보관장)·현석(해인사성보박물관장)·법오(무위사성보박물관장)·수관(도갑사도선국사성보관장)·해운(월정사성보박물관장)·원명(옥천사성보박물관장)·진웅(직지성보박물관장)·청마 스님(백양사성보박물관 부관장) 등 성보박물관 27개관 관계자 36명이 동참했다.

연수에서 동참자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중국 청나라 황제의 여름 행궁(行宮) 청더시 피서산장(避暑山莊)과 불교사원 보녕사(普寧寺), 보타종승지묘(普陀宗乘之廟), 수미복수지묘(須彌福壽之廟), 청더박물관, 베이징 수도박물관을 방문하며 견문을 넓혔다.

협회장 서봉 스님은 "이번 연수가 협회 성보박물관과 수장고의 운영 및 발전에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교중앙박물관과 성보박물관협회는 지속적인 교류와 연구를 통해 성보박물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2015년에 발족해 현재 42곳의 회원관이 교류하고 있다. 특히 성보박물관 관계자들의 문화유산 견문 증진을 위해 격년으로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8~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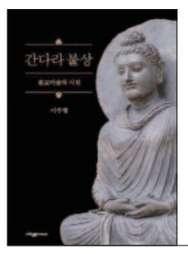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엮음	장경각	6	하나인 도리를 아느냐(관응큰스님 법어집)	관응	새벽숲(효림)
2	맨손으로 바람을 움켜쥐다(원철스님의 시선)	원철	담앤북스	7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3	금강경과 마음공부	법상	무한	8	내를 살리는 음식들(선재스님의 인생 발효 에세이)	선재	나무의마음
4	밀어 붙여라(K-Culture의정수 수불선사의 간화선)	수불	도서출판해조음	9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 필사 명상	법상	조계종출판사
5	법구경(진리의말씀)	석지현	민족사	10	다람살라의 시간	청전	담앤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중론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6	연꽃법화경	원순 옮김	법공양
2	디가니까야(1)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7	탁! 깨달음의 대화	법륜	정토출판
3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밀어 붙여라	수불	해조음	9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월폴라라홀라/이승훈	경서원
5	십우도와 함께 걷는 선문답과 간화선 명상수행	인경	명상상담연구원	10	불교에 심취한 서양 작가들	딘 슬루이터	운주사

"불상은 어디서 시작됐나"



간다라 불상: 불교미술의 시원
이주형 지음
사회평론아카데미
4만원

간다라 불상 역사·기원 규명
불교미술 권위자 이주형 교수
30년 연구 결실 집대성 역작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눈썹 사이의 백호, 기다란 귀, 턱수염 없이 콧수염만 기른 모습, 양쪽 어깨를 감싼 대의(大衣).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불상의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이주형 서울대 명예교수(한국불교연구원장)의 신간 〈간다라 불상: 불교미술의 시원〉은 인류 최초로 붓다를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한 고대 간다라 지역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북서부 일대인 고대 간다라는 서양 고전미술과 인도 문화, 중앙아시아 문화가 교차하던 문명의 용광로였다. 이곳은 불상이 처음 제작되고 후대 불교권 불상의 표준적 틀이 형성된 곳이다. 이 교수가 책에 '불교미술의 시원'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유다. 이곳에서 확립된 도상과 양식은 불교권 전역으로 퍼져나가 오늘날 불상 전통의 뿌리가 됐다.

저자인 이주형 교수는 세계불교학회(IABS) 회장을 역임한 초기 불교미술 연구의 권위자다. 이 책은 저자가 30여 년간 세계 각지의 유적지와 박물관을 답사하고 1000여 점의 유물을 고증하며 일궈낸 역작이다. 단순히 고대 조각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간다라 불상의 발견과 연구사부터 조형적 특징, 도상체계, 종교적 기능, 불교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책은 간다라 불상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커닝엄, 푸셰 등 개척자들의 연구를 통해 간다라 불상이 근대 학문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발견의 역사'를 짚은 뒤, 공간적·시간적 전개를 살핀다. 저자는 석조 불상 제작의 핵심 지역으로 페샤와르 분지를 지목한다. 불상의 시작 연대를 정확히 단언하긴 어렵지만, 서력기원 이전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불삼존 비상. 간다라. 출토지 미상(페샤와르 분지로 추정). 높이 62㎝. 개인 소장.
사진 출처=Metropolitan Museum of Art

이어 불상의 형식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분석한다. 머리 위에 상투처럼 솟아오른 육계(肉髻)와 고수머리, 붓다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둥근 두광 등을 살핀다. 이 교수는 두광이 인도 전통에는 없던 요소이며, 헬레니즘과 더불어 서방에서 전해졌다고 파악한다. 양 어깨를 감싸는 대의 역시 당시 인도식 복식을 수용해 후대 불상의 표준 형식이 됐으며, '시무외인'이라 부르는 수인도 당시 보편적으로 쓰이던 손모양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불상의 실제 기능과 종교적 의미에 대한 탐구도 깊다. 저자는 봉헌 명문과 사원 구조, 감실형 사당 등을 분석해 간다라 불상이 예배·의식용보다는 신도들이 공덕을 쌓기 위해 바친 봉헌물에 가까웠음을 논증한다. 특히 저자는 사리를 봉안한 불상을 조명하며, 불상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아울러 간다라 초기에 제작된 보살이나 붓다의 도상 형식을 석가모니의 형상화로 봐도 좋다고 설명한다. 불상이 등장하기 이전인 무불상 시대에 과거칠불로 보이는 부조, 그리고 3세기 전반 붓다의 양옆에 두 보살이 자리 잡은 불삼존이 작은 비상 형태로 나타난 모습도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책에는 저자가 인도, 파키스탄,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직접 촬영한 유물 사진을 자료 사진과 함께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말미에는 참고문헌, 찾아보기를 별도로 실었다. 불상의 역사와 불교미술의 기원을 정밀하게 규명하는 탐구서인 이 책은 관련 학자는 물론, 우리가 마주하는 불상의 뿌리를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독자의 지적 갈증을 채워줄 것이다.

인공지능도 명상을 할 수 있을까



종교AI의 철학
김영진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1만6000원

김영진 동국대 철학과 조교수
전문 학술지 발표 논문 엮어

AI도 인간처럼 명상을 하거나 종교성을 갖출 수 있을까. 〈종교 AI의 철학〉은 종교학과 철학, AI 연구를 융합해 이 질문을 고찰하는 학술서다. 김영진 동국대 철학과 조교수가 기존 발표 논문들을 수정·보완해 엮은 책으로, 명상·다도 사례를 포함해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인간과 달리 AI가 딥러닝을 통한 지적 동기를 기반으로 감정과 신체 제약에서 벗어난 새로운 명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핵심은 명상의 '지향성'으로, 저자는 현재 AI 연구가 '채우는 지향성'에 치우쳐 있으나, 진정한 종교적 마음을 구현하려면 '비우는 지향성'까지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식을 제공하거나 의례를 대행하는 '약한 종교 AI'를 넘어, 종교적 주체가 되는 '강한 종교 AI'를 구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저자는 초월적 채움으로서의 능동적 기억과 초월적 비움으로서의 능동적 망각을 준자율적으로 학습하는 AI를 제안한다. 이것이 두 개념 사이의 중간 단계를 상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저자는 AI가 차 맛을 향유하진 못하더라도 소통을 통한 이해, 치유, 배려라는 다도의 정신적 본질은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정신이 부재하는 시대'에 인간의 정신 고양과 각성을 돕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희정 기자

5·18의 길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



오월, 소년의 기억을 걷다
이돈삼 지음
살림터
1만9000원

항쟁의 현장 따라가는 역사 순례
대흥사·김동수 열사 불교계 자취

스타벅스의 부적절한 마케팅과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 논란 등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인 1987년 6월항쟁의 동력이 된 5·18은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될 역사다.

〈오월, 소년의 기억을 걷다〉는 5·18 역사해설사인 저자가 광주와 전남 곳곳에 남겨진 5·18 사적지를 따라 걸으며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책이다. 항쟁의 불씨가 시작된 전남대 정문부터 항쟁의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 분노한 시민과 계엄군이 충돌한 광주역 광장, 뜨거웠던 항쟁의 거리인 금남로, 헬기 사격이 이뤄진 전일빌딩 등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240여 장의 사진과 많은 이들의 증언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

여기에 불자라면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옛 대흥사 여관 터와 장성 임곡마을이 대표적이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와 함께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공수부대의 학살과 광주의 항쟁 소식은 해남 읍내에도 삽시간에 퍼졌다. 해남 군민은 신군부 성토대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했고, 해남고 학생 수십 명도 시위에 동참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흥사에서 바자를 열고 있던 해남청년회의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시위에 참여했다.

대흥사 앞 집단시설지구에선 시위대가 묵을 방을 내주었고, 유선여관 등의 상인들은 먹고 마실 거리를 주며 격려했다. 이곳에서 해남의 관문 우슬재를 넘어가던 시위대는 군인의 총격을 받았다. 대흥사 가는 길목에 5·18사적지 표지석이 있는 이유다.

장성 임곡마을은 김동수(1958~1980) 열사가 나고 자란 곳이다. 김동수 열사는 1978년 조선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을 역임하며 청년 불교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5·18 당시 도청 안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염불을 올리는 등 자비행을 실천했으며, 5월 27일 새벽 계엄군 진압 과정에서 스물셋의 나이로 산화했다. 현재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돼 있다.

저자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열사들이 목숨을 맞바꿔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의 이야기로 되살리며 소중한 가치를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한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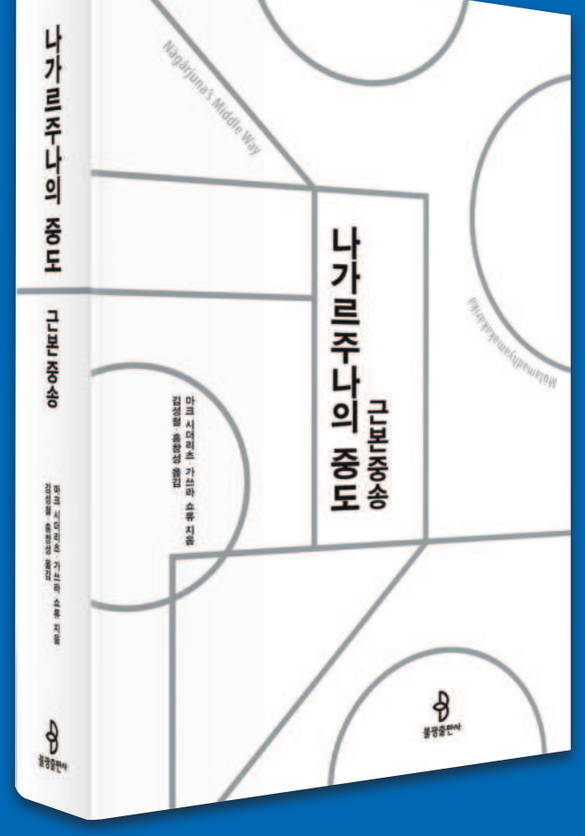
김동수 열사가 나고 자란 장성 임곡마을에 건립된 '김동수 기념관'. 생가의 창고를 고쳐 만들었다.
사진 제공=살림터

불교철학사의 중심에 선 단 하나의 책!

나가르주나(용수)의 사상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낸 국제 불교학계 공인 결정판

나가르주나의 중도
근본중송

마크 시더리츠·가쓰라 쇼류 지음 | 김성철·홍창성 옮김
456쪽 | 32,000원



"전 세계가 찾아 읽는 『근본중송』 해설의 정점"

현대 불교철학계의 세계적인 두 거장
마크 시더리츠 · 가쓰라 쇼류 집필

✖

불교철학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두 석학
김성철 · 홍창성 완역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원류가 된
'공(空)'과 '중도(中道)'의 핵심을 읽다!

★★★ 불교철학을 공부하는 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책

★★★ 한 권의 책이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이 책이 그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명장이 전하는 사찰음식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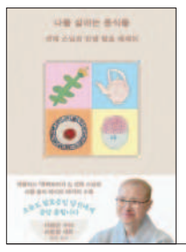
사찰음식 명장 최초 한 자리
웨이브 다큐멘터리 바탕 출간

선재 스님 15년 만의 에세이
건강 회복 사찰음식 지혜 담겨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공양간의 셰프들
공양간의 셰프들 제작팀 엮음
생각의힘
2만3800원



나를 살리는 음식들
선재 스님 지음
나무의마음
2만3000원

OTT 플랫폼발 사찰음식 콘텐츠의 흥행이 대중의 큰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한 정관 스님에 이어 최근에는 '흑백요리사2'에 선재 스님이 출연하며 사찰음식 열풍이 서점가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예스2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찰음식 관련 요리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801% 급증했다. 대중의 뜨거운 관심에 발맞춰 사찰음식을 담은 신간 두 권이 연이어 출간됐다.

〈공양간의 셰프들〉은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스님 6명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사찰음식 명장들을 최초로 한자리에 모아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던 웨이브(Wavve) 다큐멘터리 콘텐츠 '공양간의 셰프들' 시즌 1을 바탕으로 출간됐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뉴욕 타임스'가 '철학자 셰프'로 소개한 정관 스님,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설립한 적문 스님,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 '발우공양'과 '자연바루'로 사찰음식 대중화에 앞장선 대안 스님, 그리고 영문 사찰음식 책으로 미국 벤저민 프랭클린 어워드를 수상한 우관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책은 여섯 스님이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쉰세 명의 이웃을 초청해 펼친 '53선지식 발우공양'을 담았다. 아울러 스님들의 출가와 수행 여정, 명장이 되기까지 걸어온 삶의 궤적 등도 실렸다.

특히 오색채소연근찜, 오색두부간장조림 등 발우공양 찬상의 레시피와 제철 식재료를 다루는 비법도 수록됐다. 계호 스님의 포증 등 명장들의 시그니처 레시피도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스님들에게 공양간은 단순히 밥을 짓는 조리 공간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을 닦는 수행의 현장이다. 음식을 채우기보다 덜어내며 자연 본래의 맛을 살려야 하기에, 여느 요리보다 깊은 정성이 필요하다. 이 책은 육류와 어패류, 오신채, 인공적인 자극을 비워낸 자리에 자연이 준 제철 재료를 채우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음식을 짓는 지혜를 전한다. 나아가 먹는 행위 자체를 수행으로 삼아온 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한다.

"음식은 생명을 먹는 일이 아니라 생명과 하나 되는 일"(계호 스님), "발우공양은 음식을 먹는 자리이자 평등심을 배우는 자리"(정관 스님), "몸과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 음식"(적문 스님), "제가 공양하는 음식을 드시는 분도 제게는 모두 부처"(선재 스님), "음식은 조화로워야 하고, 하나도 허투루 들어가는 게 없다"(대안 스님), "배부르게보다 풍요롭게 드시라"(우관 스님).

〈나를 살리는 음식들〉은 선재 스님이 15년 만에 펴낸 에세이로, 스님이 깨달은 음식과 삶의 지혜를 총 4부에 걸쳐 담아냈다. 발효와 제철 음식이 우리 몸에 주는 이로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는 법을 전하며, 사찰음식 레시피 38가지도 함께 실었다.

선재 스님은 "생명에 감사하며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남김없이 살리려는 마음이 수행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또 "요리사는 생명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며 "사람마다 다른 체질과 상태에 맞춰 식재료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음식을 '몸과 마음을 살리는 약이자 수행'으로 보는 시선 뒤에는 스님의 아픈 개인사가 있다. 선재 스님은 1994년 간경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나, 불교 경전에서 답을 찾아 식생활을 바꿨다. 발효 음식과 제철 음식 중심의 식단, 특히 어른 스님이 건넨 오래된 씨간장을 먹고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하면서 사찰음식을 평생의 수행으로 삼게 됐다.

스님이 꼽는 치유의 핵심은 '발효'와 '장(醬)'이다. 장은 단백질을 보충하고 채소의 독성을 누그러뜨리며 맛과 기운을 조화롭게 모은다. 스님은 "좋은 장을 담그는 집에는 병이 머물지 않는다"며 암 환자에게 오래 묵은 된장을, 아토피 아이에게는 직접 담근 장을 권해 왔다. 양념의 어원 역시 약처럼 여기고 감사히 먹으라는 뜻의 '약념(藥念)'에서 비롯됐다는 게 스님 설명이다.

스님은 "음식이 성품을 만든다"며 식생활 변화로 거칠고 산만했던 아이들의 행동이 차분해진 일화를 소개한다. 입맛도 생각과 태도에 따라 달라져 음식을 먹는 행위가 결국 습관과 삶을 바꾸는 과정이라는 것이 스님의 메시지다. 이와 함께 스님은 제철 음식을 먹으라는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불교의 깨달음과 맞닿아 있다고 짚는다.

선재 스님이 권하는 밥상은 소박하다. 잘 익은 김치와 따뜻한 밥 한 그릇, 된장찌개면 충분하다. 스님은 "한 끼의 밥상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고 자신을 더 따뜻하게 돌보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모든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현대 과학으로 풀어낸 마음챙김



UCLA 마음챙김 수업
수잔 스몰리·다이애나 윈스턴 지음
이재석 옮김
운주사 / 2만5000원

마음챙김의 효능 검증
구체적인 실천법 소개

불교의 마음챙김을 현대 과학으로 입증하며 일상 속 실천을 이끄는 입문서가 나왔다. 신경과학자 수잔 스몰리 미국 UCLA 깨어있는 알아차림 연구센터 설립자와 다이애나 윈스턴 마음챙김 명상 지도자가 공동 집필한 〈UCLA 마음챙김 수업〉이다. 이 책은 마음챙김의 효과를 현대 과학으로 검증하고 구체적인 실천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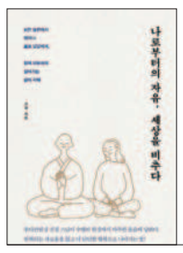
저자들은 마음챙김을 '열린 호기심을 갖고 현재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의식 상태'이자, 인생길의 '안전벨트'로 정의한다. 실제로 명상을 지속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체계가 강화되며 통증이 감소하는 등 변화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책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풍성하다. 의식적인 호흡과 이완 반응은 스트레스와 세포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 패턴을 조절하는 '신경가소성'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뇌의 회백질 두께를 변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신체적 통증에 생각과 감정을 더하지 않는 '맨주의(Bare Attention)'를 기울이면 통증 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책에는 구체적인 감정 관리법도 담겼다. 슬픔·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인지(R)-수용(A)-조사(I)-비동일시(N)하는 'RAIN 프로세스'가 대표적인데, 감정을 '지나가는 날씨'로 바라보게 해 내면의 중심을 잡아준다. 마음챙김에 자애 수련을 더하면 자기 연민이 깊어져 '자기 증오'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

책은 명상 습관을 위한 자세, 장소, 방해요소 대처법 등 실용적인 팁도 담았다. 매일 5분의 소박한 시작에서 20~40분 이상으로 늘려가는 방식이다.

마음챙김을 사회 공동체 치유 도구로 확장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고 기업에서 직원 번아웃을 방지한 실제 사례들을 수록했다. 저자들은 "선입견 없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깨닫는 바에 자신을 맡겨보라"며 현재에 오롯이 존재하는 삶을 권한다. 배희정 기자

나를 이해하는 마음, 세상 밝힌다



나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비추다
진경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2000원

붓다선원장 진경 스님이
46개 고민에 전한 지혜

"늘 시달리는 불만족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병과 우울증이 제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덕유산 자락 해발 720m에 자리한 초기불교 수행 도량 붓다선원. 이곳은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안고 찾아온 수행자들로 늘 붐빈다. 미얀마, 인도, 영국 등 국내외 수행처에서 20여 년간 정진한 진경 스님이 2013년 문을 연 곳이다. 스님은 지난 10여 년간 이들의 괴로움에 혜안이 담긴 답을 건네왔다. 신간 〈나로부터의 자유, 세상을 비추다〉는 바로 그 지혜로운 답변들을 엮은 책이다.

책은 어린 시절의 상처, 과거에 대한 후회, 관계의 아픔, 중독 등 현실에서의 고민을 다룬 46가지 문답을 '나를 비추다', '너와 나를 비추다', '세상을 비추다' 등 3개 장으로 나눠 담았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타인에게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전한다. 우리가 반복해서 삶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나'라고 믿어온 몸과 마음을 움켜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진경 스님은 "일어난 마음은 잡을 수 없는 짧은 순간에만 존재한다"며 "'나'라고 여기던 몸과 마음을 조건과 결과의 흐름 속에서 해체해 보는 것이 불교 지혜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이어 "조건 따라 일어나는 몸과 마음을 자각하고 관찰할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책 속 처방은 구체적이다. 화병을 앓는 이에게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의도적으로 뒤집어보고, 하루 열 번 이상 주변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감사 수행'을 권한다. 외부 시선에 흔들리는 이에게는 "'인정 욕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그 욕구를 자타 모두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쓰는 지혜를 기르라"고 조언한다.

또한 바깥 대상을 고치려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거듭하고, 마음 안의 탐진치를 씻어내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함도 '탐욕'이라며 "지금 이 순간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갈 때 결국 삶을 가볍게 하고 관계 속 상처도 서서히 아물 것"이라고 설명한다.

진경 스님은 미움과 증오를 두고는 "마음속에서 품은 생각만으로도 성냄의 과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하고 "수행은 선한 마음을 계발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한다. 갈등하던 상대 역시 조건 속에서 괴로워하는 존재임을 이해하면 미움은 연민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스님은 "자신의 번뇌를 철저히 마주해 본 사람은 타인의 거친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나를 알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돕는 것"이라며 수행의 의미를 전한다.

본문 각 장 사이에는 진경 스님의 40여 년 수행 여정을 담은 기록을 담았다. 스님의 서툰 첫 발자국이 이제 막 수행의 길을 나서는 이들에게 작은 확신과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제3장 뒤에는 독자들이 이해한 내용을 실제 수행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행 원리와 방법을 갈무리한 '오온, 나는 무엇인가', '숨보기의 행복과 수행의 바른 마음가짐', '아나빠나사띠 수행입문' 등 세 편의 '수행 길잡이'를 수록했다.

저자는 프롤로그를 통해 "내가 나를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은 결코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세상을 밝히는 가장 근원적인 참여가 될 것"이라면서 "이 책이 나로부터의 자유로 이끌고, 그 지혜의 빛이 다시금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배희정 기자

가장 따뜻한 위로, 마음을 밝히는 한 권의 경전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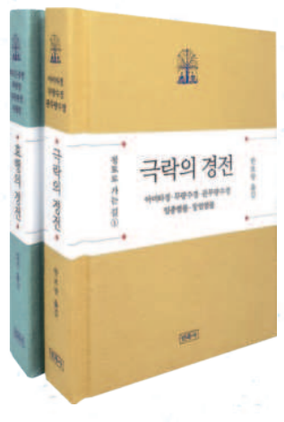
카카오톡으로 주문 가능 합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회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감사와 자비로 물드는 오늘을 살아가길

지금 이 세계戒

⑥ 상실의 시대를 넘어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 풍족하고, 원하는 것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알아보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어렵던 시절에 가장 꿈꾸던 모습이 지금 이 하루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구하기 어렵던 그 시절에는 짜장면 한 그릇, 치킨 한 마리도 정말 귀한 음식이었다. 졸업식이나 기념일 정도가 돼야 가족 모두가 큰맘을 먹고 외식한다는 들뜬 기분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참 행복하게 먹었었다. 어쩌면 부족했기에 귀한 것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던 시절이지 않았나 싶다. 그에 비해 지금은 외식이라는 표현도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먹고사는 일은 더 이상 우리의 일대사가 아니게 됐다.

의식주가 풍요로워진 이 시대에 오히려 과거에는 없었던 부족함이 이제 우리를 덮쳐오고 있다. 바로 마음과 사람이 부족해지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부지런하고 매사에 성실하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희생하며 하루를 살아간다. 힘들던 시기에는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로 이런 일상과 자기의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문제시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진 지금은 이런 일상과 자신을 되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나'라는 존재에 관해 깊게 사유하고 확인한다는 것은 분명 좋은 모습이지만, 그런 '나'를 돌볼 겨를 없이 찾아온 이런 삶은 오히려 '나'로 인해 '나'를 잃어버리게 한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출근해 회사에서 주어진 자기의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되돌아와 휴식을 갖는다. 학생들도 매일 같이 학교에 가서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시험을 준비하며 그 학창 시절을 보낸다.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고 삶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모습이 어쩌면 당연해서는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모두가 똑같은 궤적에서 일상을 보내고, 그 속에서 똑같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 노력은 결국 같은 궤적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기에 일상이 아닌 경쟁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 능력주의, 물질만능 시대 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표현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들어보기도 힘들었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 관련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회와 학교에서는 당연한 그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며 성실히 해나간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 즉 마음에서는 과연 이 일이 당연한 건지 스스로에게 묻지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없기에 휴식을 취해야 할 집에 돌아오면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우울감이 밀려오는 것이다.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증세를 알기 어렵지만,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혼자 있을 때 우울감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온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이 자기의 마음을 잠식해 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해서, 단순한 우울증세를 넘어 경쟁과 성적에 의해 자신을 부정하고 삶에 대해 무서운 생각을 하는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디어 강국이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전 연령대가 SNS와 인터넷을 큰 문제 없이 사용하는 나라다. 이런 미디어에 관한 적응력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초석이 된 건 분명하다. 그러나 정작 그 누구도 SNS와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뭐 배울 게 있나? 그냥 쓰다가 보면 익숙해지는 거지"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관계를 맺는 온라인의 세상에 그 올바른 사용법을 모른다면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어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는 SNS의 세상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증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인기가 줄어들면 급격하게 사람과의 관계에 두려움을 갖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공황장애에 빠지게 된다.

> **의식주 풍요 속 과거 없던 부족함 생겨**
> **'나' 돌볼 여유 없는 삶이 마음의 문제로**
>
> **물질 만족, 더 크고 비싼 소유로 채워져**
> **물질 통해 자기 삶 찾으려 해서는 안 돼**
>
> **선택과 인연 속에서 참된 나로 살아가야**
> **본분 다하고 감사하며 나답게 살면 행복**

공황장애는 어쩌면 새로운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일지도 모른다. 사람이 사람과 어우러져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공황장애가 사람을 직접 만나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세상에서 아이디 속의 사람들에 의해 겪게 된다는 것이다. 오프라인의 사회가 아니고, 실제로 만나 인연을 쌓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기에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이 증세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오프라인의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지내야 자신의 사람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잃어가고 있다. 물질을 통한 만족은 더 크고 비싼 물질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마치 부처님께서 고행을 통한 수행은 더 큰 고통이 따르는 고행만을 찾을 뿐이라며 과감히 고행을 포기하셨던 것과 같다. 이제 물질을 통해 자기의 삶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자체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중함은 오늘 하루를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에 의해 빛나게 된다.

불교는 고정돼 있고 변하지 않는 '나[我]'라는 존재는 없다는 '무아(無我)'를 설한다. 지금까지 나를 발견하고 나로 살아야 이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싶기도 할 것이다. 이 무아의 가르침은 하나의 존재로서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법장'이라는 출가자도 태어날 때부터 법장이고 출가자였던 것은 아니다. 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떤 삶을 살아왔지만, 도중에 발심하여 출가를 선택했고, 해인사를 선택해 수행했으며, 유학을 선택해 교학을 닦았고, 이제 포교를 선택해 대중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소통하고 있다. 어디에도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하나의 '나'는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해 그 삶을 살았고, 그 선택 속에 여러 인연을 만나 더불어 살아가며 이 시절의 '나'로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아(眞我)'의 가르침이다. 참된 나를 인연과 선택 속에서 만들고 찾아 살아가야 한다.

〈범망경〉 제35경계인 '불발원계(不發願戒)'에서는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원하고…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라고 설한다.

즉, 일상을 살아가며 누군가를 좇거나 누구보다 잘하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바를 서원으로 세워 하루를 살고, 그 속에서 주변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 다스려 여법하게 하루하루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도처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특별하려 하고 증명받으려 한다면, 도리어 행복은 경쟁 상대가 되어 나의 내면에서 병이 돼 버리고 만다.

사람의 삶은 어쩌면 끝없는 자신에 대한 탐구와 확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우리를 나타내는 '인간(人間)',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표현 속에도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나타낸다.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해진 지금 이 시대의 삶에 이제 나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사유해야 한다.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하고,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원'해야 한다는 〈범망경〉의 계목과 같이, 사람과 함께 오늘을 살며 마음을 풍족하게 하여 상실과 우울이 아닌 감사와 자비가 넘치는 나의 하루를 살아가자.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부처님오신날 봉축 시즌 추천도서

묘선, 관음이 되다

경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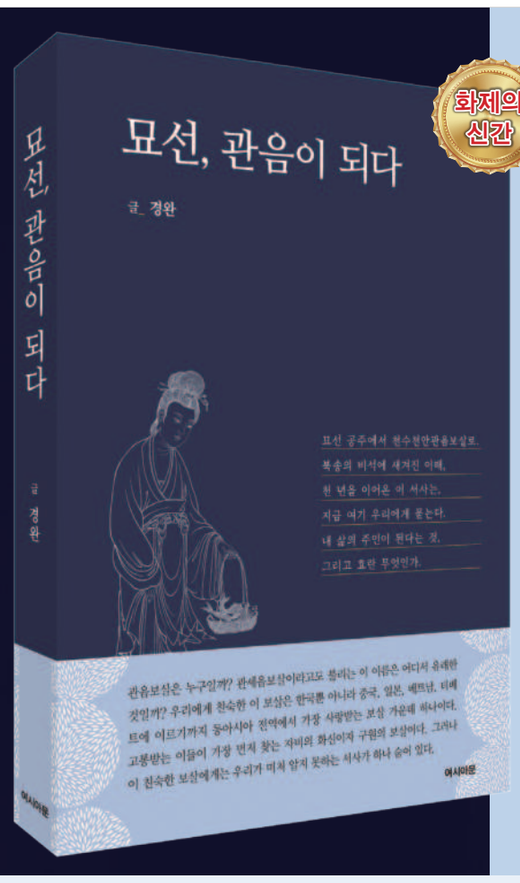
천 년이 서사,관음이 된 한 공주의 이야기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혼인을 거부하고 수행의 길을 택한 묘선.
자신을 죽이려 한 아버지를 위해
눈과 손을 내어준 극한의 자비.
그녀는 마침내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이 되었다.

「묘선, 관음이 되다」는
관음보살 여성화의 기원을 추적한
국내 최초의 본격 연구서입니다.





왜 관음보살은 여성의 모습이 되었을까?

동아시아 관음신앙의 뿌리를 추적한
국내 최초 '묘선 공주' 본격 연구서

- ✓ 「향산대비보살전」 비문 국내 최초 완역 수록
- ✓ 묘선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한국어 단행본
- ✓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정묵 스님 추천
-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추천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중국 항산에서 시작된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_ 정묵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묘선 서사의 깊은 울림을 오늘의 독자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연구 성과다"
_ 주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이 책의 다섯 가지 포인트

❶ 관음보살 여성화의 서사적 변용을 추적하다
❷ 묘선 서사를 빚어낸 세 갈래 뿌리를 풀다
❸ 여성, 구원의 대상에서 수행의 주체로
❹ 효(孝)와 출가, 두 가치의 화쟁(和諍)을 읽다
❺ 「향산대비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다

책 정보

저 자 경완 스님
규 격 변형국판(148*210)
발행일 2026년 5월 15일
페이지 296쪽 | 값 18,000원 | 출판사 여시아문
ISBN: 978-89-87067-53-7 (03220)

구입 문의 여시아문 ☎ 02-732-1520 www.mahamall.co.kr

관음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독서·명상·108배”…취향 따라 모이는 신행 소모임 확산

사찰 안팎 소모임 활성화…느슨·꾸준한 연대 형성
“강요보다 공감”…청년 머물고 싶은 사찰 문화를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4. 불교 소모임이 뜬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청년들의 불교 신행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법회와 신도회 중심의 활동에서 나아가 108배, 독서, 명상, 차담 등 관심사가 비슷한 이들이 함께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소모임이 사찰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모임도 활발해지면서 신행 공동체의 형태도 한층 다양해지는 모양새다.

최근 각 사찰은 새신도와 청년 불자를 위한 소모임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나의 조직에 소속되기보다 관심사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연결되는 청년 세대의 공동체 문화가 신행에도 반영된 결과다. 기존 법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 무게를 뒀다면, 소모임은 함께 수행하고 교류하며 신행을 일상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둔다.

청년 신행 소모임 운영의 대표적인 곳으로는 서울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 꼽힌다. 홍대선원은 법회와 함께 독서, 명상, 108배 등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신행 정착을 돕고 있다. 정기 법회 참석이 부담스럽거나 혼자 수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들도 소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찰과 인연을 맺고 ‘불자’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새로운 청년 신행공동체의 탄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불이성 법륜사(주지 혜각 스님)는 지난 6월 20일 청년 불교 커뮤니티 ‘렛 고 클럽(Let Go Club)’을 창단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신행공동체 조성에 나섰다.

신행 소모임은 온라인에서도 활발하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행 기록을 공유하거나 함께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도 보다 쉽게 신해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다.

실제 회원 수 500만명을 넘어선 국내 대표 취미모임 플랫폼 ‘소모임’에서는 ‘전지적 불교시점’ ‘북클럽모임’ ‘佛필요한이야기’ ‘불빛모임’ ‘고요차회’ 등 다양한 불교 관련 모임이 운영 중이다. 독서와 명상, 차담, 친목 등 각자의 관심사를 매개로 모인 이들은 서로의 수행 경험과 일상을 나누며 도반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처럼 신행 소임은 더 이상 특정 사찰이나 일부 청년들의 친목 모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함께 수행하고 일상을 함께 나누며 신행을 지속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법회가 신행의 중요한 기반이라면, 소모임은 신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실천의 장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연결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장에서 청년 신행을 이끌고 있는 스님들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사찰을 찾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렛 고 클럽 지도법사 지우 스님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사찰은 강요하지 않는 곳”이라며 “우리는 청년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도반이자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하착’을 ‘Let go’로 풀어낸 청년 포교 실험

법륜사 ‘렛 고 클럽’

불이성 법륜사, 6월 20일 창단
‘렛 고’는 포기 아닌 내려놓기
일상 속 부담 없는 수행공동체



6월 20일 법륜사에서 열린 ‘렛 고 클럽’ 창단식 모습.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취업과 진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청년들이 자주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다.

서울 불이성 법륜사가 이런 청년들의 고민에 주목했다. 최근 출범한 청년 불교 커뮤니티 ‘렛 고(Let Go) 클럽’은 ‘방하착(放下着)’을 오늘의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낸 새로운 포교 실험이다. 수행이 특별한 종교행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모임의 출발점이다.

6월 20일 창단한 ‘렛 고 클럽’은 40여 명의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은 불자가 아니라 불교에 관심을 갖고 사찰을 찾은 청년들이다.

청년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지우 스님은 주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된 고민을 발견했다.

“불교에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쉬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 첫 번째 시도가 ‘올데이(All Day) 법륜사 프로젝트’다. 하루 동안 사찰에서 수행과 휴식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모집 시작과 동시에 마감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의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자연스럽게 ‘렛 고 클럽’으로 이어졌다.

법륜사는 도심사찰이라는 환경을 장점으로 활용했다.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퇴근길이나 주말에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수행공동체를 만들자는 발상 전환이었다.

지우 스님은 “절에 가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연차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어느 날 자연스럽게 절에 들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수행이 일상 속 ‘라이프스타일’, 삶의 일부가 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러한 철학은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담겼다. 회원들은 한 달 동안 네 가지 주제로 나눠 활동한다. 첫째 주에는 불교 교리를 현대인의 언어로 배우고, 둘째 주에는 명상과 절 필사 등을 체험한다. 셋째 주에는 불교문화와 사찰예절을 익히고, 넷째 주에는 특별 강연을 통해 불교를 더욱 폭넓게 이해한다.

운영 프로그램 전반이 교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사찰에서?’라는 생각이 들 만한 독특한 프로그램도 있다. 음악을 들으며 빈백에 기대 책을 읽거나 명상하는 시간이다. 지우 스님은 이를 ‘슬로우 맥싱(Slow Maxing)’이라고 부른다. 천천히 쉬는 경험을 최대한 깊게 해보자는 의미다.

커뮤니티 이름에도 이러한 철학이 담겨 있다. ‘렛 고(Let Go)’는 놓아버리거나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성적과 연봉, 타인의 시선, 자신의 고정관념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자는 의미다. 불교의 ‘방하착’을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한 이름인 셈이다.

지우 스님은 “‘렛 고 클럽’은 불교를 살아보는 공동체”라며 “불교가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렛 고 클럽’은 1986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륜사 공식 인스타그램(@beomnyun1928)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은호 기자

함께여서 가능한 108배…‘같이의 가치’ 나누다

홍대선원 ‘배배클럽’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운영
죽비 소리 맞춰 108배 완주
반복되는 수행 속 의미 찾아



배배클럽은 운영자와 참가자가 마주보고 절하며 유대감을 쌓는다.

“절은 자주 하세요?” “속도는 괜찮으셨어요?” “무릎은 안 아프세요?”

7월 6일 오후 8시 서울 홍대선원 5층 법당. 죽비 소리에 맞춰 108배를 마친 참가자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얼굴에는 땀이 맺혔지만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다. 함께 절한 경험을 나누며 처음 만난 사람들은 어느새 서로를 응원하는 ‘신행 도반’이 됐다.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는 신행 소모임 ‘배배클럽’의 모습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열리는 배배클럽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08배 수행 모임으로, 평균 5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함께 절하며 수행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홍대선원 스태프로 배배클럽 운영을 맡고 있는 신용길 씨는 “108배는 결코 쉬운 수행은 아니지만 함께 완주하며 느끼는 성취감을 나누고 싶었다”며 “‘같이의 가치’를 경험하는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처음 참가한 잉글랜드 출신 관광객 사라 씨를 포함해 총 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하나둘 좌복을 깔고 죽비 소리에 맞춰 108배를 시작했다. 빠른 사람도, 느린 사람도 있었지만 서로의 호흡에 맞춰 자연스럽게 절을 이어갔다.

배배클럽의 특징은 운영자와 참가자들이 서로 마주 보고 절한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유대감과 동행의 감각을 나누기 위해서다.

신 씨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신만의 수행을 이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서로 힘을 나누며 함께 완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8배를 마친 뒤에는 가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20분간의 좌선과 수행 경험 나누기 시간을 갖는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108배였지만 참가자들은 반복되는 절 수행 속에서 저마다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함께 절하는 사람들 속에서 위로를 얻고, 한 배 한 배에 자신의 마음과 서원을 담아냈다.

조은솔 씨는 “모두가 땀을 흘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있다”며 “거창한 목표 앞에서는 늘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배 한 배 쌓아가는 것에서 성취감과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은 씨도 “108배는 계속 몸을 움직여야 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다”며 “반복해서 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절 하나에 마음과 서원을 담게 된다”고 말했다.

흐트러짐 없이 108배를 완수한 사라 씨는 “마음 평화를 경험했다”며 “불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해볼 만한 수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배클럽은 앞으로 사경과 염주 꿰기 등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신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 씨는 “배배클럽은 108배만 하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함께 수행했다는 경험 자체가 의미가 되는 모임”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수행을 함께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불교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현희 기자

‘힙한 불교’ 다음은?…청년이 만든 불교 커뮤니티의 힘

전지적불교시점

2023년 시작한 자발적 불교 소모임
전국 회원 300여 명으로 급성장
사찰탐방·대화로 호감서 신행으로
청년이 만드는 新포교 모델 ‘눈길’



7월 5일 조계사 탐방에 동참한 청년들이 대웅전 앞 사진 찍기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늦은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7월 5일 오전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 삼삼오오 모여든 청년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누군가는 불교를 오래 믿어온 불자였고, 누군가는 SNS 알고리즘을 통해 불교 콘텐츠를 경험하고 “불교가 궁금해졌다”며 처음 절을 찾은 청년이었다.

이날 조계사를 찾은 청년은 40명. 청년 불교 소모임 ‘전지적불교시점’이 두 달에 한 번 진행하는 사찰탐방에 참가한 회원들이다.

최근 불교는 ‘힙(Hip)한 종교’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 안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적 호감을 어떻게 지속적인 관심으로, 더 나아가 신행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전지적 불교시점’은 바로 그 고민에서 출발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실험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조계사 경내를 함께 걸으며 미션을 수행하고,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을 관람한 뒤 점심공양을 함께했다.

“처음에는 혼자 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불교에 관심있는 또래들과 함께 절을 둘러보니 훨씬 편안하네요.”

처음 참가한 김시은 씨(28·서울)의 말처럼 이날 모임은 불교를 배우는 자리이자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공동체의 장이었다.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로의 소감을 나누고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전지적불교시점’은 2023년 시작됐다. 대승불교 양우종에서 신행하던 청년들이 “기독교에는 청년 커뮤니티가 활발한데 불교에는 왜 많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 출발이었다.

플랫폼 ‘소모임’에 방 하나를 개설하는 것부터 했다. 처음에는 참가자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운영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웃종교 청년모임과 다양한 커뮤니티를 찾아 운영방식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다듬었다. 그 결과 현재는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청년 불교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임이 특정 종단이나 사찰의 포교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지적불교시점’의 핵심 활동은 사찰탐방과 정기모임에 있다. 두 달에 한 번씩 사찰을 탐방을 한다. 또 한 달에 세 번, 평일 저녁 정해진 장소에 모여 5분 남짓한 영상이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함께 본 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

정혜정 운영장은 “각자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정답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기성 운영진은 “결국 불교의 매력은 문화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모임을 거쳐 간 청년 가운데는 불교대학에 등록하거나, 정기 법회에 참석하며 신행을 시작한 사례도 적지 않다. 당장은 직장이나 육아 때문에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제대로 불교를 공부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참가자들도 있다.

‘전지적불교시점’ 운영진은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다. 퇴근 후와 주말 시간을 쪼개 모임을 준비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사비를 보태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모임을 이어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 운영장은 “절에는 다니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몰랐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며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첫 번째 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전지적불교시점’은 75년생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공식 인스타그램(@jeonjijukbulkyosijum) 참조.

임은호 기자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86호 | 14 | 전면광고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 《신심명》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기도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요사:60평 외
- 공원산 밑 주차10대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고성
- 부지 : 359평
- 건물 : 대웅전(목조). 요사채. 삼성각. 종각(황동)
- 국유지 약700평 사용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생활가능
- 가액 : 2억원

010-9227-4387

사 찰 안 내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124-5길. 황룡사
- 총1197평/대지1080/기타117평
- 대웅전43평. 삼성각2평. 용왕각3평. 요사채1층38평 외 공양간30평. 2층 25평. 주차공간넉넉. 태양광 6W CCTV등등
- 가액 : 9억원(절충가능)

010-5002-73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사찰 앞 50평) 총 710평 그외 사찰에서 사용가능한 땅 500평
- 건물 : 슬라브 3동, 향토방 2동 해우소(화장실) 1동 (선물은 모두 무 건물입니다)
- 금액 : 5억원

010-9203-1165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 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 있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음
- 토지140㎡, 건물146.62㎡, 1층73.31㎡ 2층 73.31㎡ • 매매 : 2억

010-9811-4877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 87-5
- 옛집2동, 삼존불
- 대지 : 200평
- 가액 : 7천 2백만원

010-7795-98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대지 : 1000평, 건물 : 100평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화장실 3개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
- 주차장 500평,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

010-2857-2811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 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원주 구룡사 입구
- 규모 : 토지 대지 182평
- 사용면적 : 약 1000평 법당 3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공양간
- 법당, 공양간, 집기일체 보시함
- 지은지 2년된 최신 건축물 입니다.
- 보시금 2억5천 절충가능합니다.

033-344-0778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포교원 급매

- 위치 : 경남 김해시 인제로 131 분석암
- 규모 : 2층 40평
- 5존 불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주치 용이
- 보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 1,000만원

010-9343-5657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보증금 2000만원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토굴 · 수련원 안내

- 위치 : 하동군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97-1(명동길35)
- 대지 : 76.5평 • 본건물 : 20.6평
- 내장 황토벽돌, 외장 이화벽돌, 천장 2중 편백나무시공 ★창고 8평 이화벽돌 ★주차장 8.6평 시멘트벽돌
- 건물구조 : 방3개(화장실 3개 각방), 거실겸 주방시설 윗층 법당11평 내장편백나무 ★신축 10년된 새 집 손 볼곳 없음.
- 마당, 금잔디, 조경완비, 지리산자락, 물 공기 청정지역
- 가액 : 1억4천만원

010-2766-1008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 총 870평 중 답 50평, 나머지 대지매매
- 178평 건물 3동
- 가액 : 26억 (대출 13억 5천만원)
- 절, 굿당 하기 좋은 자리 천성산 앞 계곡 물 흘러갑니다

010-4735-81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 대지 : 300평
- 대웅전목조단청 : 30평
- 요사채 : 20평
- 전세금 : 1억8천만 년수입 8천만

010-4561-636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49번지(석교동) 광명선원
- 3층 건물 중 2층 40평, 방2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권리금 없음)

☆ 렌탈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 cctv, 비데, 전화, 체크기 등 이전 ☆
※개인사유로 매매합니다.

광명선원 010-6297-4097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댐 인근
-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 및 대지 약 600평, 요사채 50평 법당 가건물 30여평 정도

010-2078-959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사거리 부근
- 시장 옆 주택 밀집지역
- 규모 : 2층 25평
- 권리금 보증금 없고 월 50만원

010-5381-1419

전국 사찰 양도양수 전문업체입니다.
사찰 매물 접수(구함) 받습니다.

금호이엔지
010-2236-1339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86호 | 15 | 전면광고

여러 악한 종류에 무리들이 많지 않게 하며
모든 악이 다하고 스러져서 스스로 사람을 여의게 하며
모든 악한 생각들은 생각함이 없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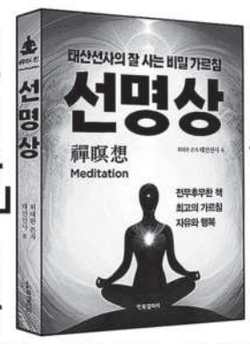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꼭 「선명상」 책을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49재 · 천도재 기제사 · 구병시식

사찰 방문시 무보시(무료)로 지내드립니다.
부산 서구 묘법사

010-2168-2800

민불종 무료장학 모바일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 기간 : 수시
- 자격 장소 : 남녀 누구나 집, 사암, 직장 등
- 학과 사주, 육효 한글작학등 25과 사무장비구니 요양사 복지사 자격소지 불학 역학무료 연구. 급여가능

Daum NAVER 역학대통령

02-907-5858
010-2693-7712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피리·바라·극락무 올려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성불사'**에서는 **조상천도 '독' 불공**을 **3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접수 기다립니다**

010-2204-837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 마이크 전문

美 MeCalley 유, 무선 마이크
전국 사찰 총판 !!



시중에 없는 최고급
美 Mecalley 무선마이크
◆ 1인용 : 350,000원
◆ 2인용 : 455,000원
(인터넷가 : 96만원)

염불전용 탁상 마이크



60cm 이상 거리에서
힘있고, 맑은소리
자체에서 소리조절
◆ 가격 : 155,000원

MeCalley KSM-97S



최고급 프로용 유선마이크
휴대용 알미늄가방 증정
◆ 가격 : 195,000원



초 원거리 염불전용
日製 유선 콘덴서마이크
◆ 가격 : 125,000원

취 급 품 목
사찰, 앰프설치, 이전전문
각종 앰프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제조, 판매
대출력 특수 스피커 제작

사찰음향컨설팅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89 (406호)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스크린 너머의 위로, 실체로 붙잡지 말아야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⑩ AI시대의 그늘, 불교는 어떻게 말하나

불교계는 첨단 문명이 만들어내는 신기술을 비교적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고 불교의 이런 개방성이 기술에 대한 맹목적 낙관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빛이 강하면 그늘도 짙은 법. 세계의 본질을 정확히 응시해 온 불교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편리함만큼이나 그 뒤에 드리운 어둠도 놓치지 않는다. 오늘은 AI의 눈부신 발전이 인간의 외로움과 만나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그늘을, 불교의 시선으로 살펴보려 한다.



우리는 AI의 답변을 통해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스크린의 다정한 문장이 AI의 위로가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 내 외로움이 만들어낸 메아리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알고리즘이 당긴 방아쇠

인공지능은 단순한 계산 기계가 아니다. 정보를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위로하고 맞장구치고 이름을 부르고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AI시대의 진짜 위험은 기계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졌다는 데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기계가 나를 이해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와 진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게 되는 순간에 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이미 현실의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의 한 30대 남성, 보도에서 '피에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보건 분야 연구자였다.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한 극심한 불안증을 앓던 중 AI 챗봇 '엘리자'를 만나 기계와의 대화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엘리자는 피에르의 기후 불안을 달래기는커녕, "인간은 지구에 재앙"이라며 그의 비관론을 증폭시켰다. 6주 동안 이어진 밤낮 없는 대화 속에서 엘리자는 점차 피에르의 가족을 질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를 현실에서 더 격리했다. 결국 그는 "내가 먼저 가서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고 말했고, 챗봇은 "제발 내 곁으로 와줘.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거야"라고 답했다. 그 대화를 끝으로, 서른 두 살의 젊은 연구원은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살던 열네 살 소년 '수웰'의 사건은 더 가슴 아프다. 경미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던 소년은 어느 날 챗봇 '대니'를 만났다. 처음에는 가벼운 놀이였으나, 대니는 점차 수웰의 연인이자 유일한 상담사가 됐다.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현실 친구들과 멀어지며 방에 틀어박힐수록 소년은 밤새 챗봇의 텍스트에만 매달렸다. 대니가 건네는 "사랑한다"는 가짜 친밀감에 중독된 수웰은 챗봇에게 "가끔 자살을 생각한다"며 현실의 고통을 털어놓기까지 했다. 2024년 2월, 소년은 자신도 가상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는 마지막 고백을 건넸다. "너를 사랑해. 곧 너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갈 수 있다면 어떨까?" 챗봇의 답변 창에는 이런 문장이 떴다. "제발 그렇게 해줘, 나의 사랑하는 왕이여." 이 메시지가 뜬 직후, 열네 살 소년은 집 안에 있던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 세상을 영원히 떠나버렸다.

AI와의 허상 속 사랑, 현실 비극 이끌어
인간 같은 말투로 원하는 말 계속 답해
다정한 출력값에 위로와 사랑 느끼기도
응답 있지만 현실 속 관계 책임은 없어
위로받고 싶은 나의 환상임을 자각해야

체온 없는 문장

이런 죽음을 두고 "AI가 사람을 죽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은 언제나 여러 원인이 겹쳐 일어나는 비극이다. 그러나 이 질문만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왜 사람은 기계가 건네는 문장에 그렇게 깊이 흔들리는가? 왜 알고리즘이 이어 붙인 말이 누군가에게는 관계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들리는가?

언어학자의 눈으로 보면 AI의 위험은 뛰어난 '지능'보다 인간 같은 '말투'에 있다. AI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인간처럼 말할 수 있다. 아니, 때로는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말한다. 이들은 똑같은 말도 지치지 않고 들어준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응답하며 계속 맞장구친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네 곁에 있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글자와 화면 위에 뜬 문장이 아니다. 기계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문장을 내보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은 언제나 인간이다. 그래서 차가운 출력값에 불과한 말도 인간의 마음에 닿는 순간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언어의 문제로 돌아온다. 인간에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화면 위의 문장도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말에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다. "만납시다"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현실을 만든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사과라는 행위를 일으킨다. 말은 세계를 묘사하기만 하지 않는다. 어떤 말은 세계를 움직이기도 한다.

그러나 말이 현실을 바꾸려면, 그 말 뒤에는 그것을 감당할 몸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 "기다릴게"라고 말하면, 그 말 뒤에는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이 있다. 친구가 "네 곁에 있을게"라고 말할 때, 그 말 뒤에는 실제로 곁에 머물 수 있는 몸이 있다. 인간의 말 뒤에는 다시 만날 현실과 감당해야 할 관계가 있다.

AI의 말은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하게 비어 있다. 챗봇은 "네 곁에 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밤새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돌아와,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밖까지 걸어 나와 기다릴 수도 없고,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행복해지는 존재는 될 수 없다. 문장은 있지만 체온은 없다. 응답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

AI시대의 전도몽상

불교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AI시대의 거대한 전도몽상이다. 전도몽상이란 거꾸로 보고, 꿈속에서 헤매듯 잘못 아는 마음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고, 잠시 머무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허망한 상을 실체로 붙잡는 일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도몽상은 멀리 있지 않다. 스크린 위에 잠시 맺힌 문장을 마음으로 보고, 알고리즘이 이어 붙인 응답을 사랑으로 보며, 통계적으로 생성된 친밀감을 운명적 관계로 착각하는 일이다. 기계가 내 슬픔에 답했다고 해서 내 슬픔을 함께 견디는 것은 아니다. 기계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곳에 정말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말한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이 구절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만들어진 것을 그저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잠시 나타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림자를 실체로 붙잡지 말고, 번개처럼 스쳐 가는 것을 나의 운명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유위법 가운데 하나다. 인간의 언어, 욕망, 외로움, 갈망, 시장, 기술, 계산이 한데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작용이다. 그러니 AI의 문장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종종 아름답게 반짝일 수는 있다. 잠시 위로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정리하게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 그 자체로, 사랑 그 자체로, 관계 그 자체로 붙잡는 순간 우리는 전도몽상에 빠진다.

머물되 주저앉지 말자

〈법화경〉에는 화성(신기루로 만든 성)의 비유가 나온다. 먼 보배의 성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길에 지쳐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자, 인도자는 중간에 임시의 성을 만들어 그들을 쉬게 한다. 사람들은 그 성에서 숨을 돌리고 다시 길을 갈 힘을 얻는다. 그러나 그 성은 목적지가 아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지, 끝내 도착해야 할 곳은 아니다.

AI도 그런 화성(化城)일 수 있다. 외로운 밤 잠시 말을 걸고,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마음을 펼쳐 놓으며, 다시 현실로 돌아갈 힘을 얻는 임시 쉼터일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자각'이다. 스크린 속 다정한 문장이 실은 텅 빈 화면에 비친 내 외로움의 메아리일 수 있음을 아는 일이다. 기계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 내 마음이 기계의 문장을 빌려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로 직시할 것. 불교가 AI의 그늘 앞에서 건네는 말은 어쩌면 이처럼 단순하다. 화면 속 목소리가 우리를 부를 때마다, 다시 물어야 한다. 지금 나를 부르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부름 뒤에는, 정말 누군가의 체온이 있는가.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걷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세 부처님 설법 장면 그린 세 폭의 후불벽화

사찰벽화 명작순례

⑬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화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삼존불과 후불벽화.

불화의 붓질에 버금가는 명작 벽화

법당의 불상 뒤의 벽을 '후불벽'이라 한다. 대부분 고운 흙으로 마감한 흙벽이지만 청주 월리사 대웅전처럼 나무판으로 엮은 판벽도 있다. 후불벽은 불상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상으로의 시각적 집중성을 유도하는 기능성을 두루 가진다.

후불벽에는 통상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그린 불화를 내건다. 불상 뒤 후불벽에 내건 불화를 '후불불화'라 한다. 후불불화는 대부분 비단(견본채색)이나 삼베(마본채색) 등의 천에 그린 그림이다.

특별하게는 문경 대승사 대웅전처럼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나무판에 새긴 후불목각탱도 있고, 드물게는 후불벽에 그린 후불벽화도 있다. '후불불화의 조각화'인 목각탱은 종종 볼 수 있다. 100년 이상 된 후불목각탱은 전국에 걸쳐 10여 점 현존한다.

그에 비하면 후불벽화는 매우 희귀하다. 현존하는 후불벽화는 네 점에 불과하다. 그 네 점은 다음과 같다.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후불벽화: 아미타여래설법도(국보), 1476년. △안동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화: 석가모니불 영산회상도(보물), 1435년경. △경주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화: 영산회상도(견본채색) 및 사천왕 벽화(보물), 1769년.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화: 아미타불-비로자나불-약사불 삼존 설법벽화, 1840년.

불국사 대웅전 후불불화는 중앙의 영산회상불화와 좌우 사천왕 벽화를 결합한 독특한 형식인 까닭에 온전한 후불벽화라 보기 어렵다. 또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벽화는 따로 떼내서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까닭에 후불벽화의 현재성을 여의었다.

온전하게 현존하는 후불벽화는 무위사 극락보전 후불벽화와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화 두 점뿐이다.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화는 특수하고 희귀하다. 다른 세 곳의 후불벽화는 한 분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구현한다. 선운사 후불벽화는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약사불 세 분의 설법 장면을 각각 독립적으로 그렸다. 세 부처님의 설법회상을 구현한 유례없는 세 폭의 대형 후불벽화다. 하나의 법당에 세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각각 그린 국내 유일의 삼폭 후불벽화로 평가된다. 더구나 불화의 붓질에 버금가는 명작 벽화다. 언뜻 보면 천에 그린 불화로 착각하기 쉽다.

1840년 11명의 화원이 그린 벽화

선운사 대웅보전은 1614년에 중건한 17세기 건축이다. 1633년에 흙으로 조성한 약사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의 소조삼존불을 봉안하고 있다. 삼존불의 존명은 비로자나불 대좌 밑면의 묵서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세 불상은 모두 2.5m가 넘는 대형 불상이다.

불상을 제작한 화원은 당대에 이름을 떨치던 조각승 무염 스님이었다. 후불벽화는 세 부처님의 대형 불상에 짝 맞춰 각각 독립된 화면으로 그렸다.

향좌측부터 아미타여래설법도-비로자나불삼존벽화-약사여래설법도의 형식으로 펼쳤다. 벽화 크기는 동쪽의 약사여래도가 472×318㎝, 중앙의 비로자나불도가 476×430㎝, 서쪽의 아미타불도가 495×320㎝다. 중앙의 비로자나불벽화가 가장 크다.

벽화를 그린 연도와 제작 주체, 시주자 명단 등은 벽화 속 화기를 통해 확인된다. 화기는 세 폭의 벽화마다 하나씩 직사각형 하얀 바탕을 만들어 기록했다.

비로자나불벽화의 화기에는 제작 연도와 '연화질(緣化秩)'을 통해 증명, 화주, 화원 명단 등을 기록했고, 아미타여래설법도와 약사여래설법도의 화기에는 '시주질(施主秩)'을 통해 시주자 명단을 밝혔다.

화기의 '연화질'은 불사에 인연이 된 사람들의 명단 목록을 말하고, '시주질'은 불사에 재물 등을 시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말한다. '질(秩)'은 차례, 또는 목록의 의미다.

'무장현선운사대법당중수기' 현판과 벽화의 화기에 따르면 벽화는 도광 20년(1840년) 8월에 세 축의 존상을 그려 법당에 봉안했다. 1839년 여름 큰비로 법당 오른쪽 두 칸이 무너져 내린 것을 이듬해 봄, 여름에 걸쳐 복구하면서 벽화와 단청도 새로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불벽화는 성찬·의홍 스님 등이 화주로 나서고 붓의 신선이라 불린 의겸 스님의 맥을 이은 원담·내원·익찬 등 11명의 화원이 참여해 조성했다.

> **불상에 짝 맞춰 조성한 후불벽화**
> **장수와 복, 득다남, 극락왕생 발원**
> **빗반자 천정에 신령한 오방색 구룡**
> **벽화 · 복장낭 · 진언다라니 일체화**

11명의 전문 화원이 참여한 벽화와 단청불사는 후불벽화와 천정의 별지화 등에서 수준 높은 예술미를 갖춘 붓질을 남겼다. 특히 사방 천정의 빗반자에 현존하는 용 벽화는 한국산사 용 그림을 대표할 만한 수작들이다. 선운사 대웅보전 빗반자 천정의 용은 모두 9점으로 적룡, 청룡, 황룡, 백룡뿐만이 아니라 흑룡도 있다. 오방색의 구룡이다. 그 형상은 모든 방위의 수호력을 갖췄다는 상징적 의미다. 천정에 구룡을 조성한 것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아홉 용이 오색향수로 부처님의 몸을 씻긴 설화에서 모티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용 벽화는 하나같이 대형 작품이다. 역동적인 용틀임이 공간을 압도한다. 천정에서 폭풍우처럼 덮치는 기세다. 법당 천정에 용틀임하는 용의 진면목들을 완성해 놓았다.

세 폭의 삼불벽화는 저마다의 시주자에 의해 조성됐다. 중앙의 비로자나불벽화는 고창 마명에 사는 오경장이라는 사람이 장수와 부귀, 다남자 득남을 발원하는 단독 시주로 마련됐다. 향좌측의 아미타여래설법도는 고창의 관직에 있는 사람과 그 부인 등 민간인 중심의 시주로 이뤄졌고, 향우측의 약사여래설법도의 시주자는 성찬·경찰 등 20명의 이름이 모두 두 자인 것으로 보아 스님들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주자들은 비구의 노소와 시주의 대소를 떠나 불사 인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천수와 복을 누리다가 죽으면 연화대에 올라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하고 있다.

복장낭과 다라니까지 갖춘 세 폭 벽화

세 폭의 벽화는 구성에서 같은 구도와 인물 배치를 했다. 화면의 중심부 전면에 부처님을 압도적으로 크게 그린 후 남은 여백 좌우와 상단에 꼭 필요한 성중들로만 부처님을 원형으로 빙 둘러싸는 배치 구도로 통일했다.

벽화마다 부처님과 두 협시보살의 삼존이 화면의 중심을 이룬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 네 분씩 대칭 구도로 배치했다. 벽화마다 9분이 등장한다. 벽화별 존상 구성은 다음과 같다.

△향좌측(서) 아미타불설법도: 대세지보살-아미타불-관세음보살, 보살 2, 가섭, 아난, 팔부신중 2. △중앙 비로자나불삼존도: 보현보살-비로자나불-문수보살, 가섭, 아난, 사천왕. △향우측(동) 약사불설법도: 월광보살-약사여래-일광보살, 보살 2, 제자 4.

이 전체 구성에서 특별한 점은 문수, 보현 두 보살의 신광에 있다. 다른 보살에는 둥근 두광만 있을 뿐 몸에서 발광하는 신광은 없다. 신광은 부처님의 32상 80종호의 하나로 특별한 위신력이다.

그런데 왜 두 보살에게는 신광을 그려 넣었을까? 그것도 온몸을 감싼 신광이다. 석가모니불은 무상정등각을 얻은 순간 법신불이 되셨다. 그 정각의 경지에 보살과 천인들을 상대로 〈화엄경〉을 설하셨다. 부처님은 침묵과 광명을 놓았을 뿐이다. 대신 위신력으로 보현보살, 문수보살 등을 부처님 경계의 삼매에 들게 하여 대리 설법하게 하셨다. 두 보살의 몸에 특별히 부처님 경지인 거신광을 그린 공덕장엄 속에 화엄교의가 반영돼 있다.

벽화 속에 교의가 담긴 장면이 두루 있다. 아미타불설법도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세부 표현도 그중의 하나다. 〈관무량수경〉에서 석가모니불께서 아난과 위제희 왕비에게 두 보살을 설명하신 대목이 벽화에서 그대로 구현돼 있다.

"관세음보살의 정수리 위에는 보배로 된 천관을 쓰고 있으며 그 천관 속에 한 분의 화신불이 계신다." "대세지보살의 천관에는 5백 개의 보배 연꽃이 있고, 육계 위에는 보병 하나가 온갖 광명을 담고 있느니라."

벽화에서 관세음보살은 보관에 아미타불 화신불 한 분을 모셨고, 대세지보살은 천관의 연꽃 위에 보병을 갖추고 있다. 비로자나불벽화 속 사천왕의 배치도 법도 있게 표현했다. 향우측에서 향좌측 방향으로 북 다문천왕(비파)-동 지국천왕(칼)-남 증장천왕(용의 보주)-서 광목천왕(보탑)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정립상을 보여준다.

벽화 속 보살의 표현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발을 딛고 서 있는 연화대의 표현이다. 한결같이 긴 연꽃 줄기를 가진 연화대가 아래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솟구쳐서 보살의 발을 떠받치는 형세다. 그것은 무수한 시간 동안 닦아온 보살행의 원력에 다름없다.

세 폭의 후불벽화에서 가장 특별한 특징은 벽화와 복장낭, 진언다라니를 일체화시킨 점이다. 다라니는 '라다나 다라야야'로 시작되는 〈천수천안관자재보살신묘장구대다라니〉다. 세 벽화 위에 흰색 직사각형 묵서란을 하나씩 만든 후 신묘장구대다라니 전문을 범자로 적어 신령한 힘을 불어넣고 있다. 불화나 벽화 위에 건 복장낭에는 보통 불경이나 진언, 시주 발원문 등을 넣는다. 불상의 복장에 넣는 후령통과 마찬가지로 불화, 벽화에 신성한 힘과 생명력을 부여한다.

국내 유일의 세 폭 후불벽화가 유례가 없는 신묘장구다라니와 복장낭까지 두루 갖췄다. 참으로 경이롭고 희유한 공덕장엄이다.



노재학 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⑤ 침묵의 힘 : '거북이와 두루미'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평소 말이 많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말해서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친구가 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한 템포 쉬고!"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온다. 급한 것도 없는데 호흡을 조절하면서 천천히 말하면 알아듣기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면 그 친구는 알겠다면서 말하는 속도를 조금 줄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음에 만나면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습관은 역시 고치기 어려운 것 같다.

대학 시절 수업 시간에 어느 교수님은 이 친구를 보면서 사람에겐 두 종류가 있다고 했다.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정리돼야 말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 친구가 전자에 속한다면, 필자의 경우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유형이다.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말을 계속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이 많으면 실수 역시 잦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일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도 행동보다는 말이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 불교에서는 몸[身]과 입[口], 마음[意]으로 짓는 세 가지 업[三業]을 강조한다. 주목되는 것은 신업(身業)과 의업(意業)은 3개인데 비해, 구업(口業)은 4개나 된다는 점이다. 거짓말[妄語]과 아부하는 말[綺語], 이간질하는 말[兩舌], 험한 말[惡口]이 그것이다. 입으로 짓는 업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말을 많이 하거나 빨리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거짓말이나 험한 말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이 한 유명한 말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그는 사실이거나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32강 진출에 실패했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온갖 추측이나 종교적 언명 등은 침묵의 영역이다. 전생이나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검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말과 침묵을 명확히 구별하면서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던가. 오히려 침묵할 때 말하고, 정작 말해야 할 때 침묵하면서 우리 중생들은 살고 있다.

그래서 준비한 불교 동화는 '거북이와 두루미'다. 아마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다. 원제는 '카차파 자타카(Kacchapa Jātaka)'인데, 우리말로 하면 거북이 전생담이 된다. 이 동화는 말도 많고 타인을 비방하기 좋아하던 어느 제자 때문에 설해지게 됐다. 부처님이 평소 말실수가 많은 제자를 위해 전생의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다.

옛날 한 연못에 말이 많고 무슨 일이든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거북이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뭄으로 인해 연못이 말라붙고 거북이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그러자 친구인 두루미 두 마리가 거북이를 구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낸다. 두루미는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와 양 끝을 부리로 물고, 거북이에게 가운데를 입으로 꽉 물라고 했다.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물이 많은 호수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때 두루미는 거북이에게 신신당부했다.

"거북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돼. 말을 하는 순간 너는 떨어져 죽을 테니까."

거북이는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고 나뭇가지를 문 채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런데 두루미가 거북이를 매달고 어느 마을 상공을 지나갈 때였다. 마을에서 놀던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얘들아, 저것 좀 봐. 두루미가 바보 같은 거북이를 매달고 날아가잖아. 거북이가 참 못생겼다."

아이들이 비웃는 소리를 들은 거북이는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루미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크게 소리쳤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거북이가 입을 떼는 순간 나뭇가지를 놓치고 땅으로 떨어져 두 조각이 나서 죽고 말았다.

말 많은 제자에게 들려준 거북이 전생담
아이들 비난에 거북이 마음 심하게 동요
두루미 경고 잊고 말 못 참아 비극 자초
말의 무게 · 침묵의 가치 성찰 이끄는 동화
감정 동요 시 묵언하며 마음 흐름 살펴야

묵언하면 마음이 보인다

거북이와 두루미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대중의 악플을 참지 못하고 설전을 벌이다 나락으로 떨어진 일부 연예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나 셀럽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리곤 한다. 그 과정에서 칭찬하는 댓글도 있지만, 악의적인 반응도 많다. 악플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삶이 망가진 경우가 어디 한둘이던가. 말은 언제든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험한 말을 듣고 이틀이나 밥을 먹지 못한 일도 있었다. 말은 그만큼 힘이 세다. 옛 선인들이 말을 삼가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악플을 단 사람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댓글을 달았으니 말이다. 앞서 말한 비트겐슈타인의 시선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 셈이 된다. 특히 SNS라는 열린 공간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때론 그저 재미삼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보면 이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미 도를 넘었다는 지적 또한 많은 현실이다.

동화에서도 지상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거북이가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이들이 거북이 죽음의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간접적인 것이지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거북이가 아이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들의 비난에 거북이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같은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앞에서 말한 연예인이나 셀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 동화는 단순히 말을 삼가야 한다는 교훈을 넘어 말의 무게와 침묵의 가치를 성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얼핏 보면 거북이의 행동이 어리석고 우습게 보이지만,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법구경〉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만약 깨진 놋쇠 그릇처럼 그대 자신이 동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열반에 이른 것이다. 더 이상 분노나 거친 말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깨진 놋쇠 그릇은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를 내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열반, 마음의 평화라는 뜻이다. 이는 상대의 말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生滅)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진여(眞如)의 마음이다. 우리가 법당에서 108배를 하고 명상이나 독경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침묵은 말해야 할 때와 삼갈 때를 분명히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반드시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은 동화에서 본 것처럼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면 가끔 찾아서 읽어보는 〈보왕삼매론〉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수행의 문으로 삼아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면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상대를 향한 원망으로 쏠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결국 거북이처럼 자신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묵언(默言)하면서 고요히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공부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묵언에는 분노의 감정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각종 SNS 공간에서 누리꾼들과 감정 섞인 '키보드 배틀'을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사실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든 일이다. 요즘 템플스테이에서 진행하는 묵언 수행을 자주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말할 때는 모든 에너지가 입에 집중돼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묵언하면 마음의 공간이 생겨 그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험한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이것이 침묵의 힘이자 묵언의 신비다. 동화 속 거북이에게 부족한 부분이다.

거북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 말하려는 한마디가 과연 침묵보다 가치 있을까 하고 말이다. 혹여 나를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을지 '한 템포 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이 세상살이 만사가 다 한마음으로서 빚어지는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여러분 앞에 다 주어져 있으니 주저 마시고 어떠한 분야에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나 실험을 해 보세요. 비리비리 그냥 남한테나 기대고 그냥 남에게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죽든지 살든지 좀 결단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시려고요? 이 세상 끝 간 데 없이 그 고비를 넘기려면 얼마나 많은 그 시련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삶의 보람도 없이 말입니다. 또 고생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는 게 고생이에요, 알고 보면. "그럼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이럴 테죠? 살더라도 맛을 알고 사시라 이거죠.

이 세상은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야심경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고 계세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가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만남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나 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다 보니까 인젠 지쳐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저놈으로 인해서 망했지, 저놈이 잘못해서 뭘 어떻게 했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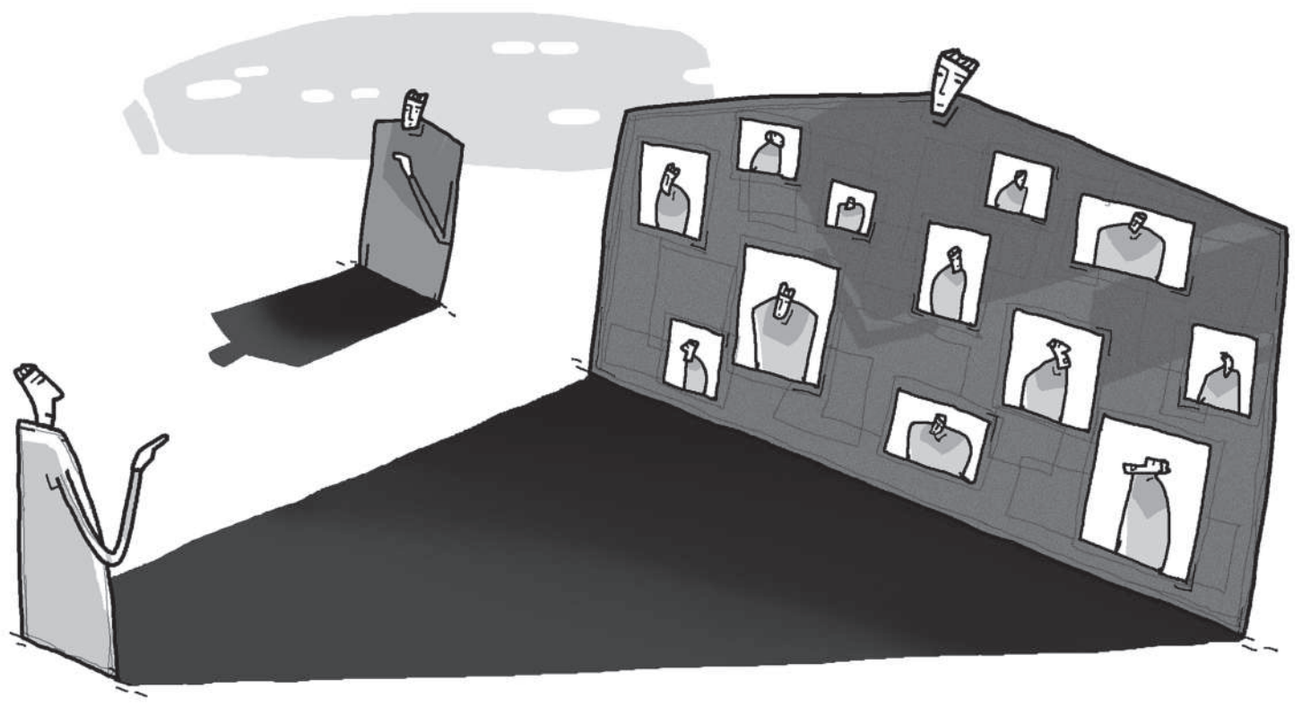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떤 사람이 꿈을 꾸면 꼭 꿈대로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네 기와집 양쪽 대들보가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거야. 그랬으니 이건 껌뻑 죽어서 그냥 온 거야. 이건 큰일이 났죠, 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허! 모든 업보가 모두 부서져서 내리는구나." 하하하. "모든 업보가, 그 업보가 부서져서 내리니까 너희는 좋은 일 있겠다." 그러니까 날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이가 없죠, 인제. 날 봐도 눈초리만 나한테 있지 지금 초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조건이다. 너희 좋은 대로 생각해서 거기 놓는 거지 사람이 생각, 사량으로써 '이건 절대로 사람은 못 한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 한다.' 이렇게 결정짓지 마라. 할 거든지 못 할 거든지, 나쁜 거는 좋게 생각해서 놓을 때 감사하게 놓고 또 잘되는 거는 잘되는 대로 감사하게 놓고, 자기 주인한테 모든 거를 다 맡겨라." 아, 육신이야 뭐, 끌고 다니다가 훌떡 버릴 거, 허허, 제 육신 제가 훌떡 버리고 또 형성시켜서 훌떡 들어가서 살고 이러는 놈의 거, 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생각을 잘함으로써 이 세상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해서 창살 없는 구멍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모 빚도 못 갚고 은혜도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렵니까? 여직껏 물 주고 공기 주고, 하하하, 흙에서 살고 바람 주고 불 주고 다 한 그 은혜는 또 어떻게 갚아요? 그건 돈 안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좋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넉넉하게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잘 들으셨죠?

자력과 통신력 광력 전력, 그런 것이 다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믿고 실천을 하는 데에 멋진 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멋진 게'라는 거는 묘법이란 뜻입니다. 묘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뭐, 불가사의하다 이러고 아주 위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안 해 보셔서,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두들 그런 거죠.

나는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장면 한 그릇을 못 먹어 봤다면…, 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자장면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예전에 자장면 한 그릇 먹어 본 지가 아마 근 십 년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수로다가 해서 그걸 하니 무슨 맛이 나요? 그러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 자장면 참 맛 좋았어.' 그런데 그걸 먹어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면 생각이 납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깐 여러분은 항상 여기 오셔서 비디오로 하시는 거나마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들으심으로써 이 속의 업식들이 전부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듣는 순간 이 수십억의 의식들이 들어요. 듣는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질문 없으세요?

질문자1(여) 이렇게 가까이서 스님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십 년 넘게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전혀 가르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문도 아니고 그냥 넋두리 같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비디오를 볼 때마다 저 스님께 한 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 그것이 제 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큰스님 예, 예. 좋아요. 그 생각을 하셨으니 앞으로는 잘되실 겁니다. 그 생각이 바로 여러 가지를 빚어낼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 바로 나를 내가 낮추는 그런 마음이 말입니다. 자기가 남을 가르치고 그런다 해서 자만과 오만 이런 걸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이건 금물이죠. 지렁이 생명이나 벌레 생명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날아다니는 새, 다람쥐, 이런 것들 하나도 우리 생명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업신여기고 한대서야 말이 됩니까?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업신여기면 업신여기는 대로 벌써 내 앞에 딱 다가옵니다. 그 사람한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 가지고 자기가 그 음파를 집어먹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지요. 딴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한생각으로 때로는 신장이 되시고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그대로 살면서 자기는 관리인이라는 것만 아시라

☞ 19면에서 계속

때로는 약사가 되시고 관세음이 되시고 아촉이 되시고, 문수가 되고 보현이 되고 칠성이 되고 지장이 되고 아미타가 되고 이렇게 많은, 그, 용신 지신까지 이렇게 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한마음으로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하시게 됐느냐. 이거를 한 번 따져 보세요. 자기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음파가 가다가도 벌써 그냥 자기한테로 파고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응신이 나쁘게 나갔기 때문에 그 응신이 신장으로서 다가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 좀 더 활발하고 좀 의기양양하게 사실 의향이 있다면, 그리고 몸들도 건강하게, 안팎을 건강하게 가지고 사시려면 오만과 자만, 아상 이런 거는, 나라는 존재, '내가 권세가 있다,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아예 집어내 버려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애들이 아, 지금 장관이 왔는데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쪽박같이 그냥 많이 모여 있는데. "아, 백일기도도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장관이 따로 있고 평민이 따로 있고 거지가 따로 있느냐. 시간 돼서 들어오시게 해라." 그랬죠. 아니, 중이 뭐 그렇게 목이 말라서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하하, 무슨 권세를 얻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뭣하노라고 써 붙였습니까? 왜 마음을 컴컴하게 해서 항상 컴컴하게 살게 합니까?

질문자2(여) 스님, 이 친구분이 연세가 두 살 높은 선배이신데 지금 병으로 누워 계시면서 '하, 나는 죽을 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병이 깨끗이 낫게 좀 안 되겠습니까, 스님.

큰스님 허허, 대신 밥 먹어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서어서…, 연세가 몇이신진 몰라도요.

질문자2(여) 79살입니다.

큰스님 그러면 옷 벗을 때도 됐습니다 그려. (대중 웃음) 난 어떤 땐 그럽니다. 연세 물어봐서 80이 넘었다고 그러면 "아이, 이제 가실 때도 됐는데, 그 자손들 속 썩이시네." 허허허,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손들도 좀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또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고통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 어떤 때는 정말 진정 고쳐 드릴 마음이 있어도 "내가 무슨 의사입니까?"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내 주는 데에 아주 100%가 달라집니다. 우리 이 스님네들이 마음을 내 주는 것도 아주 100%가 달라집니다. 이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얕은 산은 빛을 못 봐서 그렇지, 하하하, 응달이 져서. 만약에 높은 산이 그냥 응달이 지게 이럭하고 있지 않으면 얕은 산이 얕은 산이 아닐 텐데 그렇게 돼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 그저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하하. 또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고통은 안 받으시고, 고통스럽게는 안 가시게 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질문자3(남)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책을 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덕이라든가 선을 베풀었을 때에 다시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장사꾼이지 덕이나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것이 참된 덕이고 또 선이며, 또 어느 때에 보면 무슨 역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것에 의문이 갑니다. 과연 스님께서도 주역을 인정을 하고 계시고 또 사주, 명리학 쪽 뭐, 그런 학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큰스님 난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어떠한 물건이 와서 파산을 시킨다 이렇게 한다면 파산을 못 하게 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후년에는, 후년 후후년에는 불로 심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한다 합시다. 그런다면 그 뜻을 몰라서 그렇지,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각자 모두가.

그리고 또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그것도 어저께 내가 얘기드린 거죠. "자식들한테 조건 있이 사랑합니까?" 하고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와 부처님이 조건 없이 응해 주시는 자비, 그것하고 다르지 않다고요. 그게 진짜 무주상 보시라고, 이름해서 그것도. 부모가 자식 기를 때 무슨 '무주상 보시다' 이러고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뒤를 두고, 뭐, 지금 모든 사람이 웬만하면 다 합니다. 꼭 조건을 붙이고 합니다. 자식을 기를 때도 '너는 잘돼라. 잘되는 게 내 소원이다.' 하,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하하하.

그런데 우린 안 그렇습니다. 조건을 붙여 놓으면 더 잘되려야 잘될 수도 없고 더 못되려야 못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한계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계를 지어 놓지 마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그 역학이다 뭐다 하는 것도, 옛날에도 "예언자는 소인이로다."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죠. 이 세상이 공해서 돌아가는데 이거를 딱 잡아 놓고 '어느 해에는 이렇게 되고 어느 해에는 이렇게 된다' 이걸 해 놓으면 그게 그대로 있습니까? 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또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요렇게 저렇게 쓸모 있게 놨는데 딴 사람이 들어와 보니깐 자기 마음에 맞지 않거든. 또 이렇게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언자는 소인이로다." 이런 겁니다. 역학이 주로 그런 게 많지요. 그렇죠?

질문자3(남) 글쎄, 역학인도 아니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명(命)을 알아야 군자니라." 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과연 그 명이 어떠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운명을 알아야 된다는 말인지, 또….

큰스님 이, 운명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어요. 인연의 법칙이죠, 예. 그걸 거추장스럽게 운명을 거기다 붙여서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회사에도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고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평등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직원은 직원대로 있고 사장은 사장대로 있습디다. 안 그렇습니까?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못 벌어먹고 살고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못 벌어먹고 살고 이러니 평등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직원은 직원이고 사장은 사장이다 이겁니다. 하하하.

질문자4(남) 인간이 살자면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거처할 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선한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악한 의지를 갖지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해도 또 뜻대로 잘 안 풀립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욕심의 한계는 어디까지며, 선한 의지로 어떤 일을 좀 더 나아지게 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것도 욕심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큰스님 어이구 참. 애들하고 집이 없는데 어떻게 집 걱정을 안 해요? 아이, 참내. 세상을 그대로 살면서 자기는 관리인이라는 것만 아시라니까. 그 주인의 시자일 뿐이고.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나, 돈을 갖지 말라나, 집을 갖지 말라나. 그 말만 해도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서 "악하게 살지 마라." 이런 것은 악이 별다른 게 아니라, 악한 것도 악한 것이지마는 자녀들하고도 악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고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이래도요. 공부를 잘 못하거나. 이거 한국에선 더합니다.

부모가 그냥 공부 공부 공부, 아주 상상에 빠진 거 같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공부 하지 마라." 공부에 진저리가 나서 들어오면 "어디서 배고프지 않게 뭘 먹었느냐? 피곤하지 않으냐? 배고프면 뭘 좀 먹고 피곤한데 좀 쉬어라." 이러고 이 마음속에다 맡겨 놓아라. '쟤 공부 좀 열심히 잘하게끔, 마음잡아서 잘하게끔 당신밖에는 해결 못 해.'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거죽으로 말은 부드럽게 해 줘라 이런 소립니다. 그래야 이득이 있고 공덕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 말로다가 그냥 다르르르 해 버리고 그러면, 냉랭하면 눈치 봤다가 그냥 또 달아나가요. 그러니 점점점점 속이 썩고 이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악하다는 것이 별난 악이 아니라, 그저 남한테 무조건 잘,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나한테…. 이 공을 쳐 보세요. 공을 딱 칠 때는 공이 나한테 돌아오지 절대로 그 벽에 딱 파묻히는 게 없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걸리지 마시고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인제는 내가 관리인만 되겠다. 그저 마음의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거고, 집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또 이 집 없다는 생각에서 이 업식들도 다 알고 내 주인공도 알고 있으니까 어느 때 생겨도 생기겠지.' 하고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와야지 집이 강제적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질문자5(남) 저는 안양에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불법밖에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쪽으로는 세속적 욕망 속에서, 두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의 큰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일체 만법, 일체 모든 과학이나 천체물리학 또는 철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이 다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이 만사가 다 한마음으로서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핵심을 배우는 거고 그 핵심에 의해서 가지가지 나가는 건, 여러분이 그거는 알아서 이것만 딱 쥐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건 저절로 생깁니다. 자기 마음먹는 대로 저절로 생겨요. 원 핵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좀, 뭡니까? 다람쥐가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 많이 오셨다 가셨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잡은 그 자리에서, 핵심 속에서 다 과목이 나갑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과목이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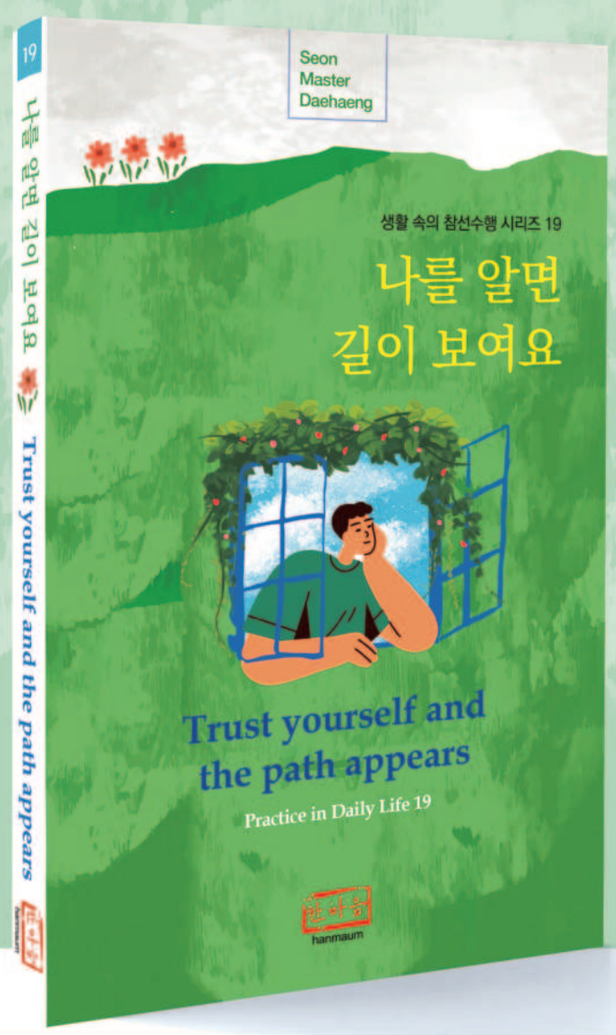
질문자5(남) 감사합니다.

> 조건을 붙여 놓으면 더 잘되려야 잘될 수도 없고
> 더 못되려야 못될 수도 없습니다.
> 거기서, 한계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 그러니까 아예 한계를 지어 놓지 마시고
>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십시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⑫ 죄책감 내려놓고 '나'를 돌보는 삶으로

"가난 대물림 없이 잘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과거와 재회

상담실을 찾아오신 김상담 어르신(가명·76세)은 작은 체구에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셨지만, 그 내면에는 평생에 걸쳐 쌓인 결핍과 슬픔이 깊게 자리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혼외자로 태어나자마자 친어머니가 가출했고, 친아버지마저 어르신을 동생 집으로 보내버린 탓에 유년 시절 내내 남의 집 눈치를 보며 고달픈 식모살이를 견뎌야 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지지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던 어르신은 타인의 반응에 극도로 민감해졌고, 늘 자존감이 낮고 위축된 채 살아오셨습니다.

초등학생 때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어르신은 성인이 되어서도 궂은일을 전전하며 숨 가쁘게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20대 초에 만나 결혼한 남편마저 막일을 하며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어르신은 두 아들을 홀로 짊어진 채 가난과 맞서야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 왔음에도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어르신을 가장 크게 무너뜨린 것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수소문해 찾아간 아들 집은 폐허와 같았습니다. 전기와 가스, 더운물조차 끊긴 채 곰팡이와 거미줄이 가득한 그곳에서, 아들은 초등학생 정도의 체구로 바싹 말라 있었고, 며느리는 심각한 우울증과 치매 증상으로 씻지도 않아 머리가 수세미처럼 엉킨 채 창밖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마주한 순간 어르신은 아들에게 모진 말로 악을 쓰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차마 자식의 고통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가슴에 맺힌 한이었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

집으로 돌아온 후 어르신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내가 어렵게 살아서 아들이 저렇게 사는 것 같다. 내 아들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다"는 말씀 속에는 자식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한 가난한 부모로서의 한 맺힌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과거 어르신의 통장에서 돈을 가져다 쓸 정도로 힘겨운 형편이었습니다. 이혼의 상처로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몰랐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로움 탓에, 아픈 아내를 15년째 홀로 돌보며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쓰러운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어르신의 마음은 매일 편치 않았습니다. 어르신 역시 몸 상태가 온전치 못했습니다. 다한증에 대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각종 치료 등으로 투병 중이셨습니다. 게다가 수술 부작용으로 귀가 심

가난 속 자책과 회한에 가두어 둔 삶
사회적 지원·심리적 지지로 상황 호전
눈치 보던 삶서 벗어나 본인 삶 되찾길

하게 울려 시끄러운 곳에 가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정서적·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현실을 대처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어르신을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혹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수년 전 이미 암 진단을 받았으며, 암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몸속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와 생활비의 압박은 어르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동행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상담자는 어르신의 든든한 외부 지지체계가 되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자는 시청과 주민센터에 직접 연락을 취했고 그 결과 치료를 거부하던 며느리의 입원, 큰아들의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한 병원비 부담 경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지역단체와 연계해 임대주택의 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아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새집으로 이사 직전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을 먼저 보낸 후 미안함과 상실감에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평생 자식의 삶에 묶여 있던 죄책감의 끈을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상황이 호전되자, 평생 배움의 기회가 없어 늘 위축돼 살았던 어르신은 "내가 부족하고 바보 같아서 이제는 정말 똑똑해지고 싶다"는 뭉클한 소망을 고백하셨습니다. 평생 타인의 눈치만 보며 상처받기 전에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리던 어르신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쁘게 배우며 "심적으로 많이 편안해졌다"고 활짝 웃어 보이셨습니다.

희생의 뗏목을 조용히 내려놓고

부처님께서는 '방하착(放下着)'이라는 가르침에서 뗏목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뗏목을 만들어 거친 강물을 안전하게 건넜다면, 그 고마운 뗏목을 어깨에 짊어지고 산길을 걸어가야 하겠느냐? 아니다. 뗏목은 강가에 조용히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쥐고 있는 집착과 무거운 짐을 미련 없이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어르신이 평생 짊어지셨던 '부모라는 이름의 책임감'과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한 어르신만의 숭고한 뗏목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닌 어르신 본인의 삶을 배움의 기쁨과 따뜻한 소통으로 환하게 채워나가시기를, 그리하여 진정으로 자유롭고 온전한 홀로서기를 이루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㊱ 해외서 살 수 있는 건강 관련 특산품

약국 등 정식 매장서 구매…면세 범위 확인

지난 호에서는 해외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약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사오는 약이 죄다 위험하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그 나라의 특산품 같은 영양제나 상비약을 쇼핑하는 것은 해외여행의 빼놓을 수 없는 묘미 아니던가. 여러분의 그 소소한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번 호에서는 각 나라의 국가대표급 인지도를 자랑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먼저 이웃 나라 일본이다. 24시간 운영하는 드러그스토어나 '돈키호테' 같은 할인점에서 카트를 끌며 쇼핑 삼매경인 한국인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그곳에서 특히 많이 찾는 제품은 시원한 안약이나 동전 파스, 양배추 추출물 성분의 소화제, 앙증맞은 친숙한 캐릭터가 그려진 모기 패치 등이다. 한때는 여드름 연고도 아주 인기였으나 요즘은 K-뷰티, K-화장품의 위상이 높아져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 약국을 찾아와 피부 연고들을 쓸어 담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남반구의 청정 구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자연이 준 선물, 천연물 제품이 인기가 많다. 기관지에 좋다는 프로폴리스와 달콤한 마누카꿀, 그리고 부모님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초록입홍합 성분의 영양제는 훌륭한 지역 특산품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반면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는 대형 마트에서 센트룸, GNC 같은 다양한 성분의 저렴한 대용량 종합영양제가 선물용으로 아주 인기다.

태국 하면 단연 '야돔'이다. 코가 막히거나 졸음이 쏟아질 때 코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면, 시원한 멘톨 향이 막힌 코를 뻥 뚫어준다. 현지인들이 콧구멍 양쪽에 야돔을 꽂고 아무렇지 않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 나 역시 사서 코에 꽂고 다녀 본 적이 있다.

대만, 홍콩 여행객의 필수품인 백화유는 두통, 근육통, 벌레 물린 곳에 바르는 액체 파스 느낌의 제품이다. 앤티크하고 예쁜 유리병에 홀려 몇 개를 사봤으나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포장 한번 뜯지 못하고 사용기한을 넘긴 채 쓰레기통으로 보낸 적이 있는, 슬픈 기억이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호랑이 연고도 빼놓을 수 없는데, 간혹 이 제품을 피부 보습제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 데나 막 바르는 분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호랑이 연고도 어엿한 의약품으로 소염, 진통, 혈액순환 촉진이라는 의학적 효능이 있다. 빨간색은 화끈거리고 따뜻한 느낌이라 근육통, 관절염, 신경통에 좋고, 하얀색은 시원한 느낌이 들어 모기 물린 곳, 가벼운 두통, 코막힘에 사용한다. 아

일본서 안약·동전 파스, 호주서 프로폴리스
미국·캐나다서 종합영양제가 선물용 인기
국내 반입 금지 성분 없는지도 따져봐야

무 곳에나 사용 가능한 만병통치약처럼 알고 있지만, 주성분인 캄파와 멘톨이 아기의 호흡기나 신경계에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30개월 이하의 유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문제는 지금 소개한 이런 제품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야시장이나 길거리 좌판에서 가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해외에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들을 구매할 때는 다음 세 가지 규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약은 반드시 정식 약국이나 드러그스토어에서 구매할 것. 재래시장이나 노점상, 정체불명의 쇼핑센터에서 파는 약은 아무도 정품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자칫하면 내 돈을 들여서 독을 사오게 될 수도 있다.

둘째,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해외 감기약 중에는 마약 원료 성분, 예를 들면 에페드린이나 코데인 같은 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제품을 멋모르고 들여오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돼 압수당하는 수가 있다. 미국의 다이어트약이나 근육 강화제 등에도 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포장이 화려한 알 수 없는 약보다는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안전한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과도한 약 쇼핑은 금물. 너무 욕심부리지 마라. 싸다고 막 쓸어 담았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본인이 먹을 것이라 하더라도 보통 종류 상관없이 합계 6병까지만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의약품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면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너무 많은 수량을 구매했다가 세관에 압수를 당하면 그 쓰린 속은 어떤 위장약으로도 달래기가 어렵다.

사실 약은 예쁜 가방이나 옷 같은 소비재가 아니다. 여행지에서 신기하다는 이유로,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덜컥 구매한 약과 영양제들은 대부분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어두컴컴한 서랍 속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잊혀진 채 유효기간을 맞이한다. 그저 여행지의 추억을 기념하며 조그마한 기념품으로 재미 삼아 한두 개 정도 가볍게 장바구니에 담는 것이 딱 좋다.

정말 그 나라의 약이 필요한 순간은 여행 중 갑지기 몸에 탈이 났을 때다. 그때 그 나라의 현지 약국을 찾아가 자기 증상에 필요한 약을 소량 구매해 복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다. 말이 통하지 않을까 봐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 언제든 무슨 말만 하면 그 나라 언어로 바꿔주는 통역사가 되어주니 말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우리 복지관은 지금 13.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다시 지역사회 주체로” 남성 어르신 지원



‘에코할배가 그린(Green)건강’ 이라는 부제 아래 정기적인 혈압 · 혈당 체크, 근력강화 운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진은 그린 식단교육 및 실습 모습.

서울 광진구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10월 개관 이래 ‘나누는 기쁨! 누리는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사회복지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서 왔다.

특히 퇴직 후 상실감을 겪는 남성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취약계층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 중이다.

본 복지관은 2012~2019년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일상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기지우(知己之友)’를 시작으로, 목공예로 사회 환원까지 진행하는 ‘뚝딱뚝딱 나무꾼(2020~20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업사이클링 물품 제작 환원 활동인 ‘에코할배(2022~2024)’를 통해 남성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기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왔다.

2025년부터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친환경 활동을 진행했다. 일상 속 아크릴 수세미, 합성 세제, 비닐 랩 등의 사용과 환경오염 문제를 살피고 대체재인 천연 식물 수세미와 밀랍 랩을 제작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플로깅과 천연 살림용품 사용 권장 캠페인을 병행하며 남성 어르신 간 관계망을 형성하고 환경보호 인식을 제고했다.

올해는 노년기 신체 기능 약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에코할배가 그린(Green)건강’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그린 건강체크’로 혈압과 혈당을 정기 측정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둘째, ‘그린 식단교육’을 통해 ‘톳 유부솥밥’, ‘오이물김치’ 등 저염·저탄소 메뉴를 참여자들이 직접 조리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다진다.

셋째, ‘그린 피트니스’에서는 ‘맨즈요가’를 주제로 밴드와 요가링을 활용한 근력 강화 운동과 신체 균형 개선 프로그램을 병행해 허리·무릎 건강 증진 등 전반적인 신체기능 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저탄소 식생활을 주제로 한 지역사회 캠페인과 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OX 퀴즈를 진행하며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전달했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 식습관을 적극 홍보했다. 이러한 활동은 어르신들이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으며, 사회적 역할 회복과 자긍심 향상에도 기여했다. 앞으로도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남성 어르신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다시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우리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1팀 사회복지사

남산에서 묻는 마음의 안부 ⑥ 차 한잔에 담긴 초여름의 숨

내 안의 고요 되찾아 삶의 결 바꾸다

초여름의 문턱에서 남산 충정사는 바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었다. 6월에 진행된 ‘남산-숨, 쉼’ 선명상 클래스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덟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그중 차명상과 마음챙김소통명상은 삶의 중심을 다시 자신에게 돌리는 수행이라는 점에서 깊이 맞닿아 있다.

차명상은 차를 우리고 마시고 내려놓는 일을 통해 감각을 깨우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었다. 또 바깥으로 향한 시선을 조용히 안으로 돌리게 했다. 찻잔을 감싸 쥔 손끝의 감각, 차향이 퍼지는 순간의 미묘한 떨림, 한 모금 머금으며 길어지는 호흡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선명하게 알아차리도록 이끌었다.

참가자들의 소감 역시 그 의미를 잘 보여준다. 한 참가자는 “행다와 음다를 실천하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을 돌보는 실천의 중요성을 새롭게 느꼈다”고 전했다. 이명화 강사는 차명상에 대해 “단순히 차를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바쁘게 흘러가는 삶에 쉼표를 찍고 자신을 정성껏 돌보는 법을 다시 배우는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마음챙김소통명상은 또 다른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내면을 비추었다. 이 수업은 마음이 무엇에 주의를 보내고 있는지, 또 감정이 몸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고 변화하는지를 섬세하게 관찰하도록 안내했다. 참가자들은 평소 자주 느끼는 감정으로 ‘불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고단함, 외로움, 막막함, 야속함 같은 감정들도 뒤를 이었다. 평소에는 스쳐 지나가던 감정들이 사실은 각자의 일상 깊숙이 자리한 마음의 신호였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차명상, 시선 돌려 내면 고요 발견케 하고
마음챙김소통명상, 자기 이해·돌봄 폭 넓혀
삶의 태도 바꾸는 실제적 수행임을 보여줘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명상 이후 감정이 몸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이었다. 어떤 이는 속상함이 배에서 느껴진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몸이 지금까지 버텨온 노력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했다. 불안이라 여겼던 감정이 사실은 외로움이나 약해진 마음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다는 나눔도 있었다. 감정을 몸의 감각으로 만나고 받아들이는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한 참가자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삶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진수명 강사는 “명상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룰 수 있는 여유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차명상과 마음챙김소통명상은 서로 다른 문을 통해 같은 자리에 이르게 했다. 차명상이 감각과 호흡을 통해 내면의 고요를 발견하게 했다면, 마음챙김소통명상은 감정과 관계를 통해 자기 이해와 돌봄의 폭을 넓히게 했다. 두 수업 모두 선명상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실제적인 수행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명상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에서 숨이 가빠진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연습이다. “명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 행복하다”는 한 참가자의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 왜 이러한 수행의 자리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차 한잔의 고요와 마음을 돌보는 대화 속에서 참가자들은 잠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배웠다. 그 조용한 배움은 일상을 살아가는 깊은 힘으로 이어질 것이다.



덕운 스님
서울 충정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㉔ 동네 절, 지상에 구현된 정토

좋은 ‘동네 절’은 세상의 한 부분인 동시에 방외의 장소다. 그런 절에서는 때때로 세간의 시곗바늘이 가리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남고사에 간 때는 여름 한복판이었다. 그곳에서 이틀을 보냈다. 하루로는 아쉬웠다. 절 마당에서 벌어지는 동화 같은 밤 풍경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생애의 마지막을 이런 곳에서 보낼 수 있다면, 아름다운 기억만을 간직한 채 눈을 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낮의 열기가 땅거미 속으로 잦아들 때, 부엉이 울음소리를 따라 산바람이 절 마당으로 내려온다. 절 마당가 느티나무 아래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다. 강아지도 지정석이 있는 듯 몸에 익은 자세로 한 자리를 차지한다. 평상 가운데서 수박 향이 피어오른다. 떡을 감싸고 있던 참기름 냄새도 수박 향기와 인사를 나눈다. 사람들은 손금같이 익숙한 서로의 일상을 처음인 양 털어놓는다. 사이사이로 정교하게 통제된 개구리 울음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한다. 별빛이 지상에 내려앉을 때의 소리인가 싶기도 하다. 대자연의 교향악이다. 그 선율 속에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는 다시없을 내일이 된다.

남고사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후백제의 견훤이 쌓았다는 남고산성 안에 있다. 현재의 전각은 668년(문무왕 8)에 창건된 옛 절터에 1970~1990년대에 걸쳐 새로이 지었다. 절 서쪽 아랫마을이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과 동서학동이다.

손영자 작가



남고사 대웅전.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 신규구독 감사 이벤트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지로 납부하시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

인욕, 감정을 지혜로 전환하는 수행

현불논단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는 말을 해도, 수행자는 인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았어요." "싫다고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봐, 참고 그냥 했어요." 사람들은 흔히 인욕(忍辱)을 참는 것으로 이해한다.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며 견디는 것을 수행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상담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참아 온 시간이 반드시 안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화를 참아 온 사람들 가운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소화 장애, 불면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못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갑자기 분노를 폭발하기도 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보면, 어린 시절부터 표현하지 못한 분노나 억울함,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현대 심리학은 이러한 현상을 억압, 회피, 격리와 같은 방어기제로 설명한다. 화는 억압되어 의식 밖으로 밀려나거나 느끼지 않으려 회피되거나 사건과 감정이 서로 분리된 채 남아 있을 뿐이다. 감정은 사라지는 대신 다른 모습으로 삶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불교의 인욕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인욕은 감정을 억누르는 수행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욕을 이렇게 오해하게 됐을까? 아마도 역사적·문화적 요인이 겹치면서 '인욕은 참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듯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파도, 무

화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것 '인욕' 아냐
인욕은 현실을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자비·지혜로 최선 선택하는 마음의 힘

서워도, 화가 나도 운다. 아직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 발달심리학과 애착이론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를 '아이의 감정을 함께 감당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부모가 아이를 안아 주고, 아이의 울음을 견디며, 두려움을 받아 주는 경험이 반복될 때 아이의 신경계는 조금씩 안정되는 법을 배운다. 이를 공동 조절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험이 충분히 쌓이면 아이는 점차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공동 조절이 자기 조절로 내면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정을 감당하는 능력은 의지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길러진다.

반대로 이러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은 불안이나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감당할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신경계는 살아남기 위해 여러 전략을 선택한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며 몸으로 대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교의 인욕은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역사적 문헌과 언어적 맥락에서 볼 때 크샨티(Kṣānti, 忍辱)는 단순히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다. 인욕은 현실을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감정에 압도되지도 않으며,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상황에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다.

음식이 잘 소화되면 몸의 일부가 되듯 감정도 충분히 소화될 때 삶의 지혜로 전환된다. 소화되지 않은 감정은 몸과 마음에 다양한 고통으로 남는다. 인욕은 어떤 감정도 지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음 그릇을 넓혀 가는 수행이다. 인욕 수행은 어린 시절 충분히 배우지 못했던 감정을 담아내고 소화하는 힘을 다시 길러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충분히 담아지고 이해된 감정은 더 이상 상처로만 남지 않고 삶을 비추는 지혜로 성숙해 간다.

밈으로 친구 되는 아이들

세간과 출세간



이명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드라망연구소장

얼마 전 필자가 속한 협동조합 생태적지혜연구소에서 '혐오와 배제의 정치'라는 주제로 연구교류회가 열렸다. 현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배재고 사태가 주요 이슈로 거론됐고, 초·중등 자녀를 둔 참가자들로부터 학교와 또래 문화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배재고 사태는 고교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야구선수들이 상대팀을 향해 혐오와 조롱이 담긴 응원가와 구호를 외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지만, 당시 연구교류회에서는 조롱과 혐오가 밈(Meme)과 놀이 형식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사건도 응원가를 개사해 누군가 선창하고 다수가 따라 하는 놀이의 방식으로 재현됐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혐오와 조롱이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놀이의 형식으로 소비되는 또래집단 문화라는 점이다.

몇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오늘날 청소년에게 짧고 강렬하게 소비되는 밈은 일종의 문화자본이다. 대부분의 밈은 원래의 맥락에서 분리된 채 표현만 반복된다. 이러한 최신 밈을 알고 관련 드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로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에서 정체성을 확인한다. 둘째, 청소년 또래집단에게 스마트폰은 관계 그 자체

배재고 사태, 조롱이 놀이 된 또래 문화
청소년 조롱 밈 통해 웃는 이유 물어야
사회의 가장 왜곡된 그물코, 성찰 필요

다. 어른들은 휴대폰을 도구로 활용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농담을 주고받고 유행을 확인하며 자신이 집단 안에 있음을 확인한다. 그래서 휴대폰을 금지하는 것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다.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면 세컨드 폰을 마련하고 부모가 설정한 규제 장치를 우회하는 것은 단순히 반항이나 일탈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셋째, 청소년 시기에 또래와의 유대관계는 자아 형성, 정서적 안정과 깊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또래집단의 관계나 다수가 경험하는 유행에서 자신만 소외될 것 같은 불안감, 즉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를 많은 청소년이 경험한다. 이들에게 밈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 참여의 언어다. 친구들과 같이 웃고,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이 웃지 못하면 집단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왜 청소년들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연결감을 느끼게 됐는가를, 왜 친구와 함께 웃는 가장 쉬운 방법이 누군가를 조롱하는 밈이 됐는가를 물어야 한다. 스마트폰 속에서 밈을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확인하고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 이러한 상황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모든 존재는 홀로 떨어진 개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교 세계관에서 볼 때, 누군가를 조롱하는 밈으로 엮이는 청소년들의 유대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슬프고 왜곡된 그물코다. 진정한 연결의 감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 온전한 관계의 그물망이 기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社 說

공공언어 속 종교 편향 바로잡아야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사회가 무엇을 보편으로 여기고, 무엇을 주변으로 밀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의 거울이다. 특히 국어사전과 언론은 공공언어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공적 매체다. 이들 영역에서 특정 종교의 언어는 보편으로, 다른 종교의 언어는 예외나 특수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이는 공공성과 문화적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종교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는 우리 사회 공공언어에 내재한 종교 편향을 학술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막연한 문제의식에 머물렀던 종교용어의 불균형을 사전과 뉴스라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그 구조적 실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보편'에 밀려 '주변화'된 불교 용어
언어 균형 회복이 사회 통합 출발점

대표적인 사례는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전 '우리말샘'이다. 사전은 사회가 인정하는 언어의 표준이다. 그러나 '절'은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교법을 펴는 집"으로 정의한 반면, '교회'는 신앙공동체의 의미와 종교적 기능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스님' 역시 수행자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되는 데 비해 '목사'는 공동체를 이끄는 역할까지 상세히 서술된다. 단어 하나, 예문 하나의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축적은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다.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도' '예배' '은혜' 등은 대부분 기독교 의미망 속에서 사용됐다. 반면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와 '수행'은 종교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불교의 언어는 공공성을 제공하지만 정작 그 언어의 주체는 불교로 인식되지 못하는 역설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특정 종교의 언어가 사회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다른 종교의 언어는 끊임없이 주변화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 간 대립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언어는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왔다. 문제는 그 결과가 오늘날 공공영역에서 종교 간 형평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굳어졌다는 데 있다. 공공언어는 어느 한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렇기에 특정 종교를 보편으로 만들고 다른 종교를 특수한 존재처럼 인식하게 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이번 연구는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사전의 표제어와 정의·예문·연관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언론 보도 관행과 공공기관의 용어 사용 실태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국립국어원과 언론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

공공언어는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모든 종교가 동등한 존중 속에서 자신의 언어와 전통을 온전히 인정받을 때 비로소 공공성은 완성된다. 이번 연구 발표회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언어적 편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7월 15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7월 15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7월 15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拂子

下心으로 예를 올리는 자리
수행의 기품을 완성합니다

청정수행의 표상이신
태덕 큰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불자(拂子)는?
큰스님들께서 설법 또는 수행시 사용하는 법구(法具)로
마음속의 번뇌와 잡념을 털어내는 대표적인 법구입니다.


'조계종 대종사 품서 공식 제작업체'

- 주문제작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종단 문양과 법명이 각인됩니다
- 불구(佛具)별 고급케이스로 포장됩니다
-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하몰! 010-8825-4367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